

이화동창

특집 ‘동창의 날’ 기념행사 / 올해의 이화인 김은주 동창 외 49인 / 제4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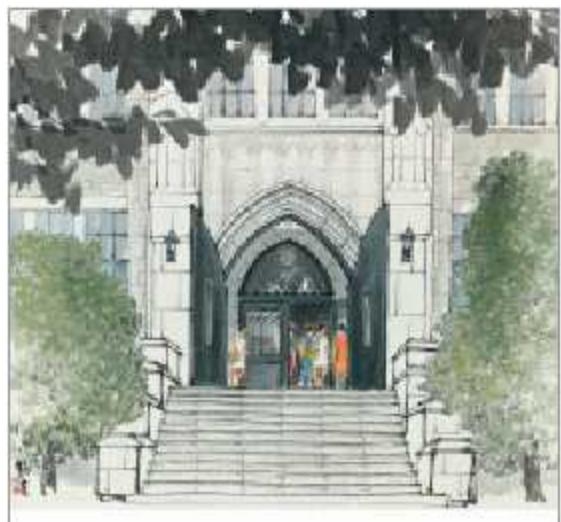
04

04

13

이화동창

2015년 여름 제139호



표지화

오용길(모교 동양화과 명예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본관
(화선지에 수묵담채, 62×72.5cm, 1995)

- | | |
|------------------------------|--------------------------------|
| 02 총동창회장 인터뷰 | 16년간 모교 동창회에 헌신한 김영주 총동창회장 |
| 04 특집1/ '동창의 날' 기념행사 | 이화 창립 129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성대히 열려 |
| 10 2015 올해의 이화인 | 김은주 동창 외 49인 선정 |
| 13 특집2/제4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 총 214명의 어린이가 참가한 오월의 잔치 |
| 17 총동창회 소식 | 대학(원) 및 과(학부), 지회 회장 초청 간담회 외 |
| 22 축하합니다 | 김현경 동창 외 15명 |
| 26 만나고 싶었습니다 | 제47회 신사임당상 수상자 김소엽 동창 |
| 29 모교 소식 | 이화 창립 129주년 기념식 외 |
| 34 이화의 이곳저곳 | 대학 내 첫 문화 공간 아트하우스 모모 |
| 38 모교 박물관 소식 | 개관 80주년 기념 소장품 특별전 <조선백자> |
| 40 나의 스승 나의 제자 | 이건희 경영학과 명예교수와 10명의 제자들 |
| 44 이화의 차세대 리더 | 전자정부 정착에 앞장서 온 박상희 동창 |
| 47 모교사용설명서 | 중앙도서관 이용법 |
| 48 대학(원) 소식 | |
| 52 과·학부 소식 | |
| 59 지회 소식 | |
| 67 동창 근황 | |
| 71 동창이 펴낸 새 책 |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 2015년 여름 139호

편집위원 김영주(교육 71) 정준순(약학 72) 김광옥(식영 75) 신은옥(초교 74) 이영희(사학 88)
김미령(신방 69) 윤혜숙(신방 86) 전세영(사학 95) 김민희(국문 99)

발행 2015년 7월 10일 발행 | 발행인 김영주 |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전화 02-3277-3386~7 | E-mail ewhaalum@ewha.ac.kr | 편집 문화정원 | 인쇄 제이오엘앤피 | 값 1,000원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15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16년간 모교 동창회에 헌신한 김영주 총동창회장

“총동창회를 빛나는 주연으로 띄우겠습니다”

제17대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한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 서기 4년, 총무 4년, 사범대 동창회장 8년, 총 16년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에 헌신해온 인물이다. 지난 3월 14일(토) 정기총회에서 신임 총동창회장으로

선임된 김영주 총동창회장을 만나 포부와 각오를 들어보았다.



총동창회장에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처음 총동창회장에 선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앞이 깜깜했습니다. 동창회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돈은 물론 자신의 생활을 포기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20만 이화동창이 지켜보는 자리이다 보니 웬만큼 일해서는 표시도 나지 않을 일이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 자리에 부른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밤새 자리에서 뒤척이는데 총동창회 회칙 1장 2조가 떠오르더군요. “모교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며 회원 상호 간에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 저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이 큰 두 줄기, 모교 발전에 협조하고 동창들의 화합에 앞장선다는 두 목표만 붙잡고 나간다면 못할 것도 없을 듯했습니다. 복잡하고 힘들 때는 오히려 큰 목표 하나만 붙잡고 나가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다양한 직분을 맡으며 다년간 일하셔서 총동창회 일에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과 동창회장으로서 4년간 일한 것을 포함하면 도합 20년을 모교 동창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역할마다 소임은 다르지만 꾀부리지 않고 일했더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총동창회장은 시야를 넓게 갖되, 세심하게 동창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직분을 맡아 다양한 경험을 해온 것이 지금 총동창회장 일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서기로 일할 때는 회의 기록을 하나라도 빠뜨릴까 봐 노심초사했고 다음 회의 전까지 회의록 올리는 게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때 임원은 절대로 회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총무로 일할 때는 총동창회 실립이 어떤 건지, 할 수 있는 한 동창회 사무실에 나와서 직접 보고 직접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창회비 걷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되어 물건을 구입할 때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당시 윤순희 회장님(현 총동창회 고문)과 스케줄을 함께하며 많은 것을 그분께 배웠습니다. 총동창회장이란 결국 동창들을 섬기며, 제일 밑에서 걸레질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이제 제가 그 마음가짐으로 역할을 잘 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사범대 회장으로 일할 때는 사범대가 11개 과로 모교에서 과가 제일 많은 대학이지만 사범대학 특성상 대부

분의 과 동창회장이 열심히 자기 역할을 다 해냈기 때문에 과가 많아서 더 힘들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중용을 지키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총동창회는 56개 과가 있으니 사범대 회장 때 하던 일의 5배 정도쯤 일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 그보다 100배쯤 쟁길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웃음). 그만큼 총동창회장은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는 물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리의 무거움을 아는 만큼 진취적으로 나서지만 경솔하지 않게, 모든 것을 동창의 입장에서 헤아리며 모교 발전에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총동창회장님이 일을 솔선수범하셔서 임원진이 잠시도 쉴 틈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웃음)

20년간 동창회 관련 다양한 행사를 치러봤기 때문에 관련 경험과 노하우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럴 거예요. 꾀를 부릴 줄 모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맙은 일은 해결하고 마는 성격이라 잠시도 쉬지를 못합니다. 동창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총무로 일하면서 체감했기 때문에 내 몸을 조금 더 움직이는 한이 있어도 공금은 함부로 쓰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첫 부장회의도 그런 다짐으로 김밥 회식을 했습니다.

또한 총동창회 임원진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관련 행사에 가능하면 참석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나눠달라고 임원진께 부탁했습니다. 덕분에 이번 임원진은 관련 행사마다 역대 최고 출석률을 자랑합니다(웃음). 다행히 총동창회 임원진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의하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번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들려주십시오

우선 첫째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를 빛나는 주연으로 띄우는 것입니다. 디즈니월드에서는 손님들은 모두 관객이고, 직원들은 사장부터 청소하는 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연이며 주연은 오로지 디즈니월드 하나뿐이라는 각오로 일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공식을 총동창회에 대입해보았습니다. 20만 동창들은 관객이며 총동창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조연입니다. 이 무대에서는 오로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만이 주연이며 그 주연을 빛나게 하고 띄워야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가 빛나는 주연이 되어 더욱더 커 나가는 것이 제 임기 동안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둘째는 모교 발전에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 준공식을 올릴 기숙사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은 학생 대비 기숙사 입소율도 대학평가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현재 기숙사 수용률은 8%이지만 새 기숙사가 건립되면 20% 정도로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모교의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각 대학 및 대학원, 과(학부) 동창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화동창들에게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100년이 넘는 동창회 역사 속에서 내려온 전통을 중시하고, 그동안 해온 일들이 왜 그렇게 진행되었는지를 생각하며, 다른 방법은 왜 선택을 안 한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보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동창들의 자문을 구하고 총동창회 고문님의 의견을 경청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그 큰일을 해 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도 이해와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동창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십시오. 총동창회가 모교 발전에 도움이 되고 동창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29주년 기념식

2015년 5월 29일(금) 오전 10시 대강당

이화여자대학교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50명의 동창들

특집1 / 동창의 날 행사

이화 창립 129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성대히 열려

올해의 이화인 50명 추대, 졸업 50주년·30주년 동창 재상봉도

모교 창립 129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가 5월 29일(금) 12시 총장 초대 오찬과 오후 2시 기념식으로 나뉘어 흥겨운 한마당 축제로 치러졌다. 흰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를 차려입은 ‘올해의 이화인’들이 녹음이 가득한 교정을 거니는 모습은 마치 스무 살 시절로 돌아간 듯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졸업 50주년(1965년 졸업)과 졸업 30주년(1985년 졸업) 동창 및 이화의 동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참석한 수많은 동창들의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 싱그럽게 빛난 하루였다.

이화 동산 안에서 친구, 가족과 정겨운 담소 나누며

이화인이라는 강한 자부심 느껴

기념식에 앞서 모교 최경희 총장 초대 오찬이 학생식당(1985년 졸업, 졸업 30주년 동창)과 교직원 식당(1965년 졸업, 졸업 50주년 동창)에서 각각 뷔페식으로 마련되어, 참석한 동창들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들며 화기애애한 담소를 나누었다.



동창의 날 올해의 이화인



제129주년 동창의 날 기념식. 왼쪽부터 김은주 동창, 김영주 총동창회장, 최경희 총장, 이행자·박상희 동창

졸업 50주년 동창들이 모인 교직원 식당에서는 한숙영(제약 79) 문화부장의 식전기도로 행사를 시작해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민금자(정외 65) 동창은 “며느리도 이화동창이며 초등학교 2학년인 손녀까지 이화에 보내 동창을 만들고 싶다”며 함께 참석한 정외과 동창 11명과 웃음을 나누었다. 가정대 동창회 아령회에서는 이날 졸업 50주년 동창 40여 명의 코사지를 직접 마련하여 참석한 동창들에게 일일이 달아주는 등 분위기를 돋우기도 했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최길자(화학 65) 동창은 “5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나 옛날로 돌아가는 기분”이라며 “멀리 타국에 살지만 늘 이화인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워싱턴에서 거주 중인 고순영(사복 62) 동창은 필리핀과 중국 등지에서 오랜 선교사 생활을 했고 고국에 온 것은 44년, 모교를 찾은 것은 50년 만이라며 “이번 방문 후 언제 다시 모교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장명수 이사장, 윤후정 명예총장, 김선욱 전 총장. 뒷줄 왼쪽부터 조종남 고문, 최명숙·장의순 전 회장, 김순영·윤순희 고문



최경희 총장



김영주 총동창회장

졸업 30주년 동창 및 ‘올해의 이화인’들이 함께 모인 학생식당에서 도 반가움의 인사는 끊이지 않았다. 정준순(약학 72) 총동창회 부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행사는 김미순(기독 75) 선교부장의 식전기도로 이어졌고 참석한 동창들은 식사를 들며 친구, 가족의 안부를 묻고 사진을 찍으며 이화 안에서 하나 됨을 느꼈다.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동창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각 과 동창들의 미소가 빛났고, 합창제에 참석하기 위해 고운 단복을 차려입은 동창들은 특히 즐거워 보였다. 국내뿐 아니라 멀리 해외에서 참석한 동창들은 이날 오랜만에 모교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 “이화는 최초이자 최고의 수식어를 가진 학교 최초는 한 번뿐이지만 최고는 자주 바뀌니 더욱 노력해야”

오후 2시부터는 초여름의 시작으로 더욱 푸르러진 모교 교정 대강당에서 모교 창립 129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가 총동창회 주관으로 열렸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을 비롯하여 정의숙 전 이사장, 윤후정 명예총장, 장명수 이사장, 최경희 총장과 150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올해의 이화인 추대’를 시작으로 작년 세월호 참사로 열지 못했던 ‘합창제’를 재개하며 행사의 절정을 알렸다. 기념식은 신은옥(초교 74) 총무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미순(기독 75) 선교부장의 기도로 막을 열었다. 김미순 선교부장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을 20만 동창들이 각기 다른 다양한 영역에서 진선미의 이화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기도 드린다”고 하였다.

이어 지난 3월 14일 총동창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김영주(교육 71) 신임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창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리라 마음먹었는데 이렇게 대강당을 꽉 채워주시니 저의 모자라는 부분을 메워주시겠다는 증표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19일 가평 이화수목원에서 고 김활란 총장을 비롯하여 이화를 위해 애쓴 분들을 기리는 자리가 있었는데 장명수 이사장님께서 이화의 5월이 항상 찬란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동안 모교의 역사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모교는 최초와 최고라는 수식을 수없이 가진 학교이지만 최초는 단 한 번뿐이고 최고라는 수식은 끊임없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세계 750개 대학 교수의 논문 평가인 ‘라이덴 평가’에서 3년 연속 국내 종합대학 1위, 전국 사범대학 평가 3회 연속 1위를 달성한 모교가 계속해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20만 동창들이 더 많은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다음 순서로는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50명을 대표하여 김은주(특교 85) 동창에게 ‘올해의 이화인 증서’를 수여했고 대강당에 모인 재상봉 동창에게는 총동창회에서 제작한 기념품을 전달하며 훈



1 올해의 이화인 증서 수여 2 사진 앞줄 왼쪽부터 정준순 부회장, 김미순 선교부장, 남상택 감사, 신은옥 총무, 이영란 감사, 그리고 졸업 30주년 동창들 3 대강당을 가득 메운 이화동창들 4 졸업 50주년 대표 이행자 동창 5 졸업 30주년 대표 박상희 동창

훈함을 나눴다. 이어 졸업 50주년 대표 이행자(초교 65) 동창과 졸업 30주년 대표 박상희(전산 85) 동창이 대표 연설을 하였다.

이행자 동창은 “첫 등교날 이화교에서 오른쪽 터널로 기차가 들어오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그런데 2년 전쯤 모교에 오니 “이화교는 간데없고 새로 설립된 ECC의 모습에 놀랐다”며 발전해가는 이화의 모습이 뿌듯하다고 말하였다. 이행자 동창은 “지금은 본인의 실제 나이에 0.7을 곱해야 진짜 나이가 되는 시대이니 그와 같은 젊은 패기로 이화의 다음 100년의 초석을 쌓아가자”고 말해 웃음과 함께 큰 박수를 받았다.

졸업 30주년 대표 박상희 동창은 행정자치부 국장급으로 일하고 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30년간 남성 위주 관직세계에서 벼텨온 힘은 이화에서 나왔고 앞으로는 이화에서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모교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단상에 선 최경희 총장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 이화”라는 모토를 실현하기 위해 최고의 교수진과 최고의 스마트 캠퍼스, 최적의 교육환경, 글로벌 네트워크 확립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모교 소식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이화동창들의 활약상을 전하였다. 또한 정량적 지표를 넘어서 2020년에는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해 이화가 해 나가야 할 목표와 과제를 항목별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1 합창제에서 이화상(1등)을 수상한 사범대팀 2 대상(2등)을 수상한 악학대팀 3 금상(3등)을 수상한 사회복지학과팀

‘올해의 이화인’ 50명 입장

흥겨운 2부 행사 막 올라

동창의 날 기념식의 하이라이트인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은 허현미(체육 89) 회우부장의 사회로 열렸다. 각 과를 대표하여 추대된 50명의 ‘올해의 이화인’은 전통음악에 맞춰 입장하여 단상에 자리를 잡았고 이어진 축하공연에서는 임희영(무용 00) 동창이 부채춤을 공연하였다. 이후 동창들은 자신의 과에서 추대된 ‘올해의 이화인’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큰 환호와 박수로 이들을 축하했다.

합창제 9개팀 참가 최대 기록

사범대팀이 1등, 평균 연령 75세 악학대팀이 2등을

또한 해마다 많은 동창들이 열렬히 참여해 기량을 뽐낸 합창제가 허현미 회우부장의 사회, 곽은아(한음 85) 음악부장의 진행으로 열렸다. 올해 합창제는 색색의 카디건을 두르고 출연한 대구 지회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를 시작으로, <그대 있는 곳까지>를 부른 조형대팀, <Fly me to the



1 체육대 라인댄스 연구회팀 2 다 함께 몸풀기를 리드하는 김숙자 명예교수

moon>을 부른 불문과팀, <사랑의 노래>를 부른 사범대팀, <Love is a many splendored thing>으로 참가한 자연대팀, <사랑의 종소리>를 부른 사회복지학과팀, 조용필의 <단발머리>를 율동에 맞춰 부른 약학대팀, <독도아리랑>을 부른 법과대팀, <아 목동아>를 부른 대전 지회 등 총 9개팀이 참가하여 지금까지 합창제 중 가장 많은 참가 인원을 기록하였으며 뛰어난 음악적 기량은 물론 흥겨운 퍼포먼스를 보인 팀도 많아서 관객의 호응도 뜨거웠다.

이어 음대 이음회가 특별 출연하여 <Give me a choral medley>를 들려주었고 체대 라인댄스 연구회팀의 특별공연이 이어져 장내의 열기가 뜨거웠다. 마지막으로 김숙자 명예교수가 ‘다 함께 몸풀기’를 리드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올해의 이화인’들과 전 동창들이 일어서서 경쾌한 음악에 맞춰 김숙자 명예교수의 율동을 따라하며 유쾌하게 행사를 마무리했다.

특별공연이 모두 끝난 뒤 합창제 심사위원장인 모교 음대 박신화 교수는 심사위원인 모교 음대 윤명자, 원영석 교수와 함께한 심사평을 유머러스하게 전달하면서 각 팀의 장점을 칭찬하고 팀의 특색에 걸맞은 가상의 상을 모든 팀에게 선사하여 큰 웃음을 주었다.

올해는 42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음악적으로 훌륭한 실력을 보여준 사범대팀이 1등인 이화상을 수상했고, 평균연령 75세인 약학대팀은 가요 선곡과 신나는 율동을 접목하여 세월을 무색하게 했다는 평을 받으며 2등인 대상을 차지했다. 그리고 2007년도 우승팀으로 그동안 참여하지 못하다가 올해 다시 참여하게 된 사회복지학과팀이 3등상인 금상을 받았다.

시상식이 끝난 뒤 동창들은 교가를 부르며 아쉬운 자리를 마감했고,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기념품을 안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올해의 이화인’들은 아령당에서 김영주 총동창회장과 최경희 총장과 기념사진을 찍은 후 총장 공관 뜰로 장소를 옮겨 가족들과 함께 다과와 음료를 들며 아름다운 5월의 기념일을 한껏 즐겼다.

글·이영희(사학 88), 전세영(사학 95)



아령당 앞마당에서 김영주 총동창회장, 최경희 총장과 기념촬영을 한 올해의 이화인

2015 올해의 이화인(1985년 졸업)

과(학부) 순서로 게재



안영호(정문)
가정주부



김미경(영문)
화가, 도예가



정재정(불문)
가정주부



채은주(독문)
KORNFERRY 아시아지역
부사장(싱가포르 주재)
백옥경(사학)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황유정(정외)
독립기념관 이사(비상임)
마중물여성연대 사무총장



기영화(행정)
전 행정학과 동창회장
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교수)



양미희(문정)
가정주부



이인숙(신방)
KBS 프로듀서
전 라디오1국장



조현주(사회)
기자, 경영인
(주)더셀러브리티 사장



이기연(사복)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대우교수
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



주영아(심리)
전 한국상담심리학회장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



최문경(경제)
(사)한국노사문화진흥원
부원장



김정아(컴퓨터)
가정주부



김혜신(수학)
(주)카멜테크놀러지
대표이사



성미숙(화학)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교수



이혜주(생명)
가정주부



박로사(피아노)
서울예고·선화예고 실기강사
(주)뷰티라인 대표이사
J&R예술기획 음악감독



허지은(관현)
(주)뷰티라인 대표이사



이선주(성악)
가정주부



장근주(작곡)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곽은아(한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조현정(종음)
전 Raum대표
현 가정요리 교사



정경미(서양)
화가, 경희대학교 건축과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강사



박신정(조소)
(주)하슬라아트월드 대표이사
미술가



봉지희(섬예)
연성대학교 패션산업과 교수



최일숙(생미)
미술학원 원장
민백 유치원-야야 키즈 강사



김인경(장미)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
패션디자인 전공 교수



정구임(도예)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공예학부 강사
스튜디오 Kooim 운영



이만령(체육)
경인여자대학교
아동체육과 교수
운동발달협회 이사



곽순영(무용)
글로벌평화문화봉사단
운영위원



이정표(교육)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처(단장)
국방부 및 육군 정책자문위원



송은미(유교)



구순옥(초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교감



이난옥(교공)
(주)한국본차이나 대표이사
부속초등학교 교감



김은주(특교)
전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현 한국경진학교 교장



정부희(영교)
곤충학자
고려대학교 한국곤충연구소
연구교수



채은미(외교/불어)
페덱스코리아 대표이사



황미숙(사생)
가정주부



남정희(과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교수



송영숙(법학)
법무법인 정률 구성원 변호사



이순영(경영)
(주)나인마케팅 대표이사



김영실(국제사무)
안산대학교 교수



정미경(의학)
전진상 의원 호스피스 담당의사



김애경(간호)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장은선(약학)
서대문구 약사회장



김성은(제약)
샘터약국 대표약사
서울시 약사회 교육이사
한국여약사회 총무



손경아(가관)
가정주부



이현미(의직)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패션마케팅 전공)



이선희(식영)
삼성서울병원 상담 영양사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
과학대학원 겸임교수

제 4 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2015년 5월 16일(토) 오전 10시~ 오후 3시 / 장소: 이화교정, 대강당
후원: 주)모나미, 주)신한화구, 주)크라운 해태제과

주 최: 이 화 여 자 대 학 교 총 동 창 회



특집2 / 제4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총 214명의 어린이가 참가한 오월의 잔치
모든 어린이들에게 표현력, 창의성, 성실성 등
부문별 상 수여해



어린이날과 동창의 날이 있는 오월은 푸른 신록의 계절, 모교 캠퍼스가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때이다. 2015년 5월 16일(토) 모교 교정에서는 ‘제4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가 열렸다. 동창들의 더 많은 참여와 소통을 위해 2012년부터 총동창회가 주최한 행사로 올해 4회째를 맞이한다. 이화가족의 자녀나 손자손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유치부와 초등부(초등 3학년까지)로 나눠서 접수하며, 참가비는 2만 원, 올해는 총 214명(유치부 95명, 초등부 119명)이 참가했다. 이 행사는 3월 25일부터 인터넷 신청을



받아 30일에 마감을 하였는데 공지가 나가자마자 몇 시간 만에 선착순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참가하는 가족이나 어린이들도 해마다 늘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풍성해진 상과 상품으로 수상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기는 동창들의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림그리기 대회의 주제는 ‘오월’. 참가한 어린이들은 총동창회 측에서 마련한 8절지 도화지를 들고 푸른 나무 그늘 사이로 즐겁게 뛰어다녔다. 어린이들은 모교의 역사가 깃든 건물, 오월의 꽃과 나무, 그 곁의 작은 생명들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관찰하고, 순수한 눈과 마음으로 형태와 색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신나게 그림을 그렸다. 자녀들과 함께 모교를 찾은 이화가족들 역시 영원한 마음의 고향 같은 모교에서 그리운 옛 시절을 잠시나마 추억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 대회부터는 여느 시상식처럼 1, 2, 3등의 등위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참가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상을 주어 격려한 것이 특징이다. 상 이름도 어린이들의 재능을 살려, ‘표현력이 뛰어난 상’ ‘창의성이 돋보이는 상’

1 대회에 참가한 이화가족 2. 3 그림그리기에 열중하는 어린이들 4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도시락





1 어린이들의 그림을 한 장 한 장 주의 깊게 살피는 심사위원들 2 심사위원장 우순옥 교수 3 어린이들에게 시상하는 김영주 총동창회장

‘성실성이 묻어 있는 상’ ‘즐거움이 가득한 상’ ‘공간감이 좋은 상’으로 정해 유치부 5명, 초등부 5명에게 각각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였다. 또한 참가한 어린이들 모두에게 ‘행복 가득상’을 수여하여 모든 어린들이 무대에 올라 상장과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2시까지 작품을 제출한 어린이 및 가족들은 총동창회 층에서 마련한 샌드위치와 김밥, 과자와 음료로 구성된 점심 도시락을 받아들고 자유시간을 즐기다가 오후 2시 시상식을 보기 위해 대강당으로 모였다. 허현미(체육 89) 회우부장의 활기찬 사회로 시작된 시상식에는 김영주 총동창회장과 심사위원장 우순옥(서양 81, 모교 조형대 교수), 심사위원 김은영(장미 85, 조형대 동창회장), 장태옥(유교 87, 양재동 천사유치원 원장), 김선(도예 94, 모교 디자인대학원 겸임교수) 등장 및 214명의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자리 를 메웠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이화여자대학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엄마가 지금보다 더 예쁘고 젊었을 때 다닌 학교여서 여러분보다 엄마가 이 시간을 더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다들 씩씩하게 열심히 잘 그렸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





1 유치부-성실성이 묻어 있는 상 2 초등부-성실성이 묻어 있는 상 3 단상에 올라 상장과 상품을 받는 어린이들

들이 단상에서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라며 참가한 어린이 모두를 격려했다. 우순옥 심사위원장은 “대회가 끝난 후 심사를 하는 시간 동안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각각의 그림들은 다른 그림들과 우위를 가릴 필요 없이 놀라울 정도로 온전하고 완벽했습니다. 어눌하면 어눌한대로, 세심하면 세심한대로 그야말로 다양한 생각과 표현의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어린이의 생각과 마음은 맑은 물과 같아서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순수하고 투명한 거울이며 비워진 세상의 통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라며 심사소감을 밝혔다.

봄날 이화가족의 즐거운 나들이는 얼굴과 마음 모두에 즐거운 그림을 그리고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마무리되었다.



협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모나미-최명숙(정외 57, 전 동창회장) 동창

(주)신한화구-한영실(도예 83) 동창

(주)크라운해태제과-육명희(경영 12 명예졸업) 동창

글·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소식

대학(원) 및 과(학부), 지회 회장 초청 간담회

총동창회 행사 소개 및 기숙사 건립 기금 마련 참여 당부

각 대학, 대학원 및 과(학부), 지회 회장 초청 간담회가 4월 22일(수) 12시 총동창회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열렸다. 3월 14일(토) 열린 2015년도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17대 신임 총동창회장으로 김영주(교육 71) 동창이 선출된 이후 첫 만남의 자리였던 만큼 각 대학 및 대학원, 과(학부) 회장들과 대구, 광주 지회 회장을 비롯한 총 84명의 많은 인원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는 신은옥(초교 74) 총무의 사회로 시작돼 김미순(기독 75) 선교부장의 기도, 김영주 총동창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 84명이 전원 자기소개를 하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2014년 총동창회 활동 보고에 이어 2015년 사업 계획 보고를 통해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 ‘제

4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모교 창립 129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하반기 진행 예정인 ‘대바자’ 등 총동창회 주관 행사에 대한 발표와 함께 ‘기념품’ 제작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장이라는 중차대한 역할에 부름 받아 어깨가 무겁지만 예년에 비해 많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만큼 총동창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을 느낀다”면서 “17대 총동창회장으로서 동창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교와는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여 모교 발전에 적극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동창회장은 ‘후원이사제’를 설명하며 이에 대한 동창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였으며, 모교 기숙사 건립 기금 마련에도 동창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모교 최경희 총장이 참석해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 이화’라는 PPT 영상을 소개하며 “이화는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혁신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의 하나로 세계적 석학을 초빙하고 최고의 스마트 캠퍼스에서 최적의 교육을 하며 이를 통해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의 도약을 약속한 최 총장은 신 산업융합대

학원 개설, 다양한 장학제도, 글로벌 마곡병원 신설 등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최 총장은 “이 자리는 각 대학 선배, 학교를 위하는 분들이 모인 자리라 더욱 긴장된다. 신임 총동창회장을 중심으로 큰 힘을 모아 학교 발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과 기념촬영을 끝으로 이 자리에 마무리하였다.

이화 창립 129주년 감사 찬양 예배

주님의 영광 속에 이화의 과거와 미래를 돌아보다

이화 창립 129주년을 축하하는 ‘감사 찬양 예배’가 5월 19일(화) 중강당에서 열렸다. 총동창회 선교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는 김영주 총동창회장, 오진경 대외협력처장 및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양명수 교목실장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성경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요구되는 진정한 ‘찬양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어서 스크랜튼 선교사를 129년 전 우리나라에 파송한 교회를 동창들이 직접 찾아가서 취재한 ‘이화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동영상을 함께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 당시 척박한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였으며 중보

역사를 돌아볼 수 있었다.

2부 순서로는 한국음악, 관현악, 발레 무용 솔로, 법대 동창 합창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임 중창단, 아미 24 불문과 동창 중창단, 다락방 노래 선교단, 총동창회 선교부의 찬양이 이어져,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교를 세우신 목적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도를 하는 작은 모임이 지금도 그곳에 남아 있다는 사실에 참석자들은 감사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영상에는 그들이 파송한 선교사가 세운 이화의 현재 모습을 알리고 나누는 현장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참석한 동창들 모두 주님의 영광 속에서 이화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 이어서 멀리 선교지에서 참석한 동창 선교사들을 소개할 때는 참석자들 모두 큰 박수로 이들을 맞이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모교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고, 주기도문 송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마쳤다.

해외 지회 동창 오찬 간담회
모교 방문 해외 동창 격려

동창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한 해외 지회 동창들이 5월 30일(토) 12시 총동창회가 마련한 오찬에 참석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올해 북미주지회 연합회 행사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것을 언급하며 “내년에 모교 기숙사 준공식이 있는 만큼 올해는 모교 기숙사 건립에 동창들이 마지막 힘을 보탤 때” 라며 기숙사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순영(약학 62) 총동창회 고문은 사비로 마련한 총동창회 기념품(친환경 물컵)을 해외 지회 동창들에게 전달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돋우는 데 일조하였다. 복가주 지회 및 홍콩, 북경, 뉴욕 지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동창 17명은 간담회를 마친 다음 날 모교 박물관에서 ‘조선백자’



전을 관람하고 ECC 케세이호에서 열린 오찬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국립박물관을 견학하며 고국에서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

선교부 소식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대강당에서 감동적인 공연 선보여

모교 무용과 교수 신은경(무용 78) 동창의 안무로 60여 명의 졸업생과 재학생이 무대에 올린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가 4월 25일(토)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나눔과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어온 이 공연은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총동창회 선교부와 이화발레앙상블이 주관했다. 수익금은 모두 이화 선교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발레로 만

나는 메시아’는 핸델의 명곡 <메시아>를 토대로 한 창작 발레로 2003년 초연된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와



해외 무대를 이어 나가며 믿음과 사랑,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작품은 ‘제18회 기독교 문화대상’과 ‘2014년 올해의 최우수예술가상’을 수상했으며, 낭만 발레의 환상적인 이미지를 현대적 움직임과 마임으로 절묘하게 조화시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2년 창단된 이화발레앙상블(Ehwa Ballet Ensemble)은 신은경 동창이 예술 감독 및 안무를 맡고 있으며, 국내외 무대에서 전통적인 클래식 발레뿐 아니라 현대 및 한국 창작 발레 공연 등을 선보이고 있다.

33차 단기선교학생 환송예배 및 동창 선교사의 날

6월 2일(화) 총동창회 선교부에서는 2015년 여름 단기선교를 떠나는 모교 재학생들을 초청하여 환송예배를 드렸다. 양현혜 목사는 이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을 전했다. 김광옥(식영 75) 총동창회 부회장은 선교지로 떠나는 이들의 담대한 믿음을 칭찬하며, 건강과 안전을 유의하라고 당부하였다. 일본으로 파송되는 김숙일(정외

이어서 선교지로 떠나는 학생들의 소개가 이어지고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각 과 선교부장들 및 선교부 기도모임에서는 이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 한다”는 선교 제목을 나누었다. 이날 단기선교를 떠나는 학생들을 위해 총동창회에서는 애찬을, 총동창회 선교부에서는 후원금을, 기독교학과 동창회와 선교부에서는 친환경 물컵과 떡을 선물하며 격려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동창 선교사의 날’이 진행되어,

네팔과 세계 각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창 선교사들이 참석해 현지 사역 보고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눈 후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에는 특별히 해외 남가주 지회 선교부 동창들이 참석하여 129년 전 스 크랜튼 여사가 이화에 뿐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로 계속 자라나는 모습을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또

한 2009년부터 동창 선교사들에게 의상 30여 벌을 기증해주고 있는 앙스모드 안윤정(독문 69) 동창의 손길은 ‘선교사의 날’에 온 선교사들에게 큰 격려와 기쁨이 되었다.



85) 선교사는 하나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것을 약속하며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잘 돋고 동역하는 복된 시간이 되겠다고 하였다.

장명수·이슬기·하채림 동창에 ‘올해의 이화언론인상’ 시상

이화언론인클럽(회장 문현숙 한겨례신문 편집국장, 영문 83)은 ‘2015년 정기총회 및 제15회 올해의 이화언론인상 시상식’을 4월 21일(화) 오후 7시 이화삼성교육문화관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최경희 총장 및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진과 언론인 선후배 등이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하고 이화언론인클럽 회원들을 격려했다.

문현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이화언론인들이 친목을 다지고, 정보를 공유하며 한국 언론과 모교 발전을 위해 모인 것”이라며 “우수하고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모교 발전을 위해 이화언론인들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경희 총장은 “‘올해의 이화언론인상’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앞으로 더 큰 활약을 통해 이화의 이름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1997년 결성 이화언론인클럽은 2001년부터 매년 언론계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상을 보인 이화출신 언론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의 이화언론인상 수상자로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신방 64, 전 한국일보 사장), 연합뉴스 사회부 기자 이슬기(정



사진 왼쪽부터 장명수·이슬기·하채림 동창

외 11)·하채림(약학 98) 동창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에서는 수상자의 소감도 이어졌다. 장명수 이사장은 “남녀차별이 매우 심한 직종인 언론계에서 유리지붕을 깬 사람들은 거의 모두 이화 졸업생”이라며 “여자라고 못할 일은 없다”라는 이화의 교육이 그 힘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동창은 “앞으로 기자생활을 함에 있어 나태해질 때 오늘을 기억하며 진지하고 성실하게 기사를 쓸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하채림 동창은 “약학 전공으로 효율적인 글쓰기를 배워볼 요량으로 듣게 된 언론사 대비 글쓰기반수업이 오늘이 있게 했다”며 “기자의 길을 열어준 이화가 주는 상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는 생각에 기대가 된다”는 소감을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화언론인클럽 회장 이취임식 및 9대 임원진 선출과 신입회원 소개 시간도 함께 진행되었다.



축. 하. 합. 니. 다.



과(학부) 순서로 게재



김현경(불문 87) 동창

이화언론인클럽 새 회장 선임

김현경 동창이 4월 21일(화) 이화언론인클럽 새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김 동창은 모교 불문과를 졸업하고 1986년 문화방송에 입사해 현재 통일방송연구소 부장으로 있으며, 한국여기자협회 부회장을 지냈다.



이정자(기독 66) 동창

제6회 역동시조문학상 본상 수상

시조시인 이정자 동창이 (사)한국시조문학진흥회와 단양 우씨 문희공파가 시조문학사에 길이 빛나는 역동 우탁 선생의 시조창작의 열을 계승하고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6회 역동시조문학상에서 영예의 본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4월 18일(토) 수안보 상록호텔 그랜드홀에서 거행되었다.



이경숙(신방 76) 동창

국가인권위 상임인권위원 선출

이경숙 동창이 3월 16일(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오랫동안 여성운동을 해온 이경숙 동창은 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한인영(사복 72) 동창

서울시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모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봉직하다 지난 2월 은퇴한 한인영(사회복지학과 동창회장, 모교 명예교수) 동창이 5월 13일(수) 서울시복지재단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한 동창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사회복지계를 대표하여 국제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 분야를 알리는 데 노력해왔으며, 2016년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사회복지대회 IPC 의장을 맡고 있다.



함영림(피아노 80)

제31회 서울음악대상 수상

모교 음대 학장인 함영림 동창이 한국음악평론가협회의 '제31회 서울음악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2015년 6월 22일(월)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상을 받았다. 1983년 창단된 한국음악평론가협회는 연주, 작곡, 평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음악인을 선정하여 1984년부터 매년 서울음악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함 동창은 국내, 독일, 이탈리아에서 20회 이상의 독주회와 독일 Koln WDR(서독일방

송) 방송 연주, KBS교향악단, 부산시향, 서울시향, 유라시안필하모니, 천안시향, 코리안 신포니에타, 서울 첼버오케스트라, 독일 Folkwang Orchestra, 폴란드 Krakow Philharmonic Orchestra, Deutsches trio 등과 협연을 가진 바 있다. 또한 10여 회 이상의 Piano duo Recital, 수십 회의 실내악, 반주 그리고 대한민국 교향악 축제, 그랜드피아노 콘서트, KT음악회 연주 등 왕성한 연주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문진수(체육 72) 동창

광주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취임

문진수 동창이 3월 13일(금) 광주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1986년 창립된 광주여성단체협의회는 광주 지역 23개 단체 4만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순수 봉사단체이다.



홍승미(교육 95) 동창

병무청 사상 첫 여성 국장 임명

홍승미 동창이 부산지방 병무청장에 임명되면서 병무청 창설 45년 만에 첫 여성 고위 공무원(국장급)이 되었다. 행시 11회로 1998년 4월 병무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홍 동창은 이후 선병지원 과장, 병역지원 과장, 대변인, 운영지원 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병무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차경애(영교 80) 동창

한국외대 테슬대학원 원장 취임

한국외국어대학교 영교과 학과장을 역임한 차경애 동창이 지난 2월 한국외대 테슬대학원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유명순(영교 87) 동창

한국씨티은행 기업금융그룹장 선임

유명순 동창이 4월 1일(수) 한국씨티은행 신임 기업금융그룹장에 선임되었다. 유 동창은 모교를 졸업한 뒤 1987년부터 씨티은행에서 일했다. 대기업리스크 부장, 다국적기업금융 본부장, 기업금융상품본부 부행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9년 JP모건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이번에 씨티은행으로 복귀했다.



한선옥(사생 88) 동창

전경련 사상 첫 여성임원 발탁

한선옥 동창이 지난 2월 전경련 54년 역사상 첫 여성 임원으로 발탁되었다. 전체 직원 중 임원이 8명인 전경련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임원으로 승진한 한 동창은 현재 인사와 재무, 총무를 총괄하는 기획본부장으로 전경련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중임을 맡고 있다. 한 동창은 모교 사범대를 졸업하고 경제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뒤 1991년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입사했고 2000년 전경련으로 이동했다.



이선희(법학 73) 동창

양육비이행관리원 초대 원장 취임

이선희 동창이 3월 25일(수)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이선희 동창은 모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가정법원 판사,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쳤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역임했다.



임선영(의학 82) 동창

코오롱 우정선행상 대상 수상

임선영(임선영산부인과, 의대 동창회 총무이사) 동창이 코오롱그룹에서 시상하는 2015년 코오롱 우정선행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임 동창은 28년 동안 여성 노숙인과 성매매·성폭력 피해 여성(서울 시립 영보자애원, 한국 여성의 집, 청소년 쉼터 등)의 산부인과 진료를 맡으면서 그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은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정미경(의학 85) 동창

보령의료봉사상 수상

2015년 '올해의 이화인'이기도 한 정미경 동창이 2015년 보령의료봉사상을 수상하였다. 정 동창은 1997년부터 의료복지기관 전진상 의원에 상주하며 지난한 이들의 마지막 삶을 돌보는 호스피스 의사로 봉사해왔다.



김수지(간호 64) 동창

범석봉사상 수상

2월 25일(수)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김수지(모교 간호대 전 학장) 동창이 범석봉사상을 받았다. 범석봉사상은 범석학술장학재단에서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공헌해온 사람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현재 김수지 동창은 말라위 대양 간호 학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유희원(제약 87) 동창

부광약품 대표이사 취임

유희원 동창이 3월 20일(금) 부광약품 공동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되면서 국내 제약사 최초의 여성 전문경영인이 되었다. 유 동창은 모교 약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5년에서 1997년까지 미국립보건원(NIH)에서 박사후연구생 과정을 밟고 1999년부터 부광약품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광옥(식영 75) 동창

이화학술상 수상

5월 29일(금) 열린 모교 창립 129주년 기념식에서 김광옥(모교 식품공학과 교수) 동창이 이화학술상을 받았다. 김광옥 동창은 사람의 제품 인식과 감각 반응의 과학적 측정법을 연구하는 감각과학 분야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고 크게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150여 편의 연구논문을 통해 감각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김 동창은 이 분야의 유수한 국제 학술지인 *Food Quality and Preference*(Elsevier)와 *Journal of Sensory Studies*(Wiley-Blackwell)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이화학술상은 탁월한 연구 성과로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모교의 학문적 우수성을 널리 알린 모교 교수에게 평생 1회에 한해 수여한다.

17대 총동창회 임원 명단

직위	이름	학과, 졸업연도	직위	이름	학과, 졸업연도
고문	윤순희	교육 65	인문대학 회장	김혜원	불문 68
	김순영	약학 62	사회대학 회장	김미령	신방 69
	조종남	의학 75	자연대학 회장	유영숙	화학 77
회장	김영주	교육 71	공과대학 회장	김미영	컴퓨터 85
부회장	정준순	약학 72	음악대학 회장	임 진	작곡 72
	김광옥	식영 75	조형대학 회장	김은영	장미 85
감사	남상택	물리 74	체육대학 회장	임혜옥	체육 76
	이영란	체육 76	사범대학 회장	신경희	수교 77
총무	신은옥	초교 74	법과대학 회장	이명숙	법학 86
서기	한미경	물리 88	경영대학 회장	임혜란	경영 78
회계	박영숙	경영 74	의과대학 회장	오헤숙	의학 78
	이승연	전산 89	간호대학 회장	김진향	간호 73
문화부장	한숙영	제약 79	약학대학 회장	정용희	약학 75
사업부장	이혜원	식영 83	생활환경대학 회장	임정희	가관 79
재정부장	임산희	유교 81	국제학부 회장	이동은	국제학부 05
음악부장	곽은아	한음 85	대학원 회장	최규룡	대학원 86
홍보부장	이영희	사학 88	교육대학원 회장	양수화	교대원 74
회우부장	허현미	체육 89	디자인대학원 회장	장규순	디대원 89
지역부장	배혜화	불문 77	사회복지대학원 회장	허지현	사복대학원 07
선교부장	김미순	기독 75	정책과학대학원 회장	최영은	정책대학원 08
정보통신부장	황정인	전산 90			

“시와 신앙은 나를 지탱해준 양(兩) 수레바퀴였어요”



“신사임당상은 고 김갑순 선생님(모교 영문과 교수, YWCA연합회 회장 역임), 고 김정옥 선생님(모교 문과 교수 역임, 김활란 초대 총장의 조카), 고 이봉순 선생님(모교 도서관장 역임) 등 큰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 받은 상이에요. 이렇게 큰 상을 까마득한 후배인 제가 받으니 면구스러우면서도 큰 영광입니다.”

지난 6월 2일(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기독교 문화예술총연합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소엽(영문 65) 동창은 제47회 신사임당상 수상 소감을 이같이 말했다. 신사임당상은 어진 어머니이자 참 교육자인 동시에 예술 분야에서도 큰 족적을 남긴 신사임당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매년 5월 가정의 달에 단 한 명에게 수여된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장 김천주)이 주최하는 이 상은 수상자 선정 과정이 매우 엄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김소엽 동창을 선정하면서 “김 시인은 그동안 한국문학상, 윤동주문학상, 기독교문화예술대상, 세계선교대상 등을 수상하는 등 작가로서 큰 업적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아대책 홍보위원, 고어헤드 선교회 고문, 문서전도 등 많은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1985년 부군 사망 후 홀로 외동딸을 키워 미시간 대 교수로 길러냈고,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김소엽 동창과의 인터뷰는 시종일관 따뜻했다. 인터뷰 섭외를 위해 첫 통화를 했을 때 김 동창은 “우리 이화 후배님이세요?”라며 매우 반갑게 전화를 받았다. 인터뷰를 시작하면서는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해야 할 일이 많아 앞만 보며 달려오느라 총동창회 한 번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주어서 무척 감사해요.”

김소엽 동창을 하나의 수식어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김 동창은 한국문학상과 윤동주문학상 등 쟁쟁한 문학상을 수상한 시인이자 대전대학교 문예창작과 석좌교수이고, 1994년 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 결성 당시부터 21년 동안 회장을 맡고 있는 독실한 종교인이다. 극동방송 등에서는 자신의 코너

를 맡아 꾸준히 방송을 진행했고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를 돌며 종교 관련 특강을 했는가 하면, 아프리카 척박한 오지로 나가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시인이자 교육자, 종교인 등으로 다방면에서 굵직한 업적을 이어온 김 동창. 차근차근 쌓아온 다양한 분야의 삶의 궤적만큼 그의 인생 스토리는 파란만장했다. 김 동창은 “쉽게 살아오지 못했어요. 시와 종교는 나를 지탱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였죠”라며 묵혀둔 삶의 이야기를 꺼냈다.

김 동창의 인생의 큰 변곡점은 남편 양영재 교수 와의 사별이다. 결혼 13년째 되던 해, 김 동창의 나이는 42세, 남편의 나이 48세에 닥친 일이다. 연세대 영문과 교수였던 남편은 학내에서 손꼽히는 인재였다고 한다. “남편은 《연세춘추》 발간을 도우면서 상담소 소장도 하고, 인문학계 일도 겸했어요. 과로로 밤새는 일이 잦았죠. 결국 과로사로 순직했어요. 간에 무리가 가서 쓰러진 후 병원에 입원한 지 2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5년 동안 거의 매일 산소를 찾아갔다고 한다. 갈현동에서 벽제까지 30분 거리를 달려 매일 그렇게 남편을 만났다. 그러다 어느 날,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 산소 바로 위에 고운 쌍무지개가 뜬 것. 김 동창은 “딸과 조카도 함께 그 광경을 봤어요. 하늘에서 남편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죠. 그 후로 산소 가는 걸 일주일에 서너 차례로 줄였어요.”

이후로 김 동창은 본격 시인이 되었다. 1978년에 《한국문단》으로 데뷔했지만 왕성한 활동은 하지 못한 상태였다. 남편을 잃은 마음을 시로 표현했고, 그 마음을 모아 시집 『그대는 별로 뜨고』를 펴냈다.



김소엽(시인·대전대 석좌교수)

1943년생. 대전사범학교, 이화여대 영문과,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졸업. 미국 미드웨스트 대학 명예문학박사 학위 취득. 호서대 정년퇴임 후 대전대 문창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 한국문학상, 윤동주문학상 본상, 이희문학상, 기독교문화예술대상 수상. 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 회장 및 대한민국시랑회 공동대표.

김 동창은 이 시집을 ‘고통 속에 뽑아 올린 시’라고 표현했다. 이 시집은 소위 대박이 났다. 시의 완성도도 뛰어났지만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택연금 당시 읽은 시로 기사화되면서 시집이 불티나게 팔렸다. 김 동창은 “24쇄까지 찍었고, 몇십만 부가 팔렸어요. 5년간 인세로 먹고 살 정도였죠”라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 후 김 동창을 청와대로 초청해 인사를 나누었다고 한다.

남편 사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딸 양서윤 씨는 아빠의 죽음으로 괴로워하는 엄마를 보면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고 고1 여름 방학 때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를 거쳐 미시간 대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양씨는 현재 미시간 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딸은 남편이 남기고 간 유일한 사랑의 열매였어요. 그 아이를 잘 기르는 것이 남편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죠. 딸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후 재혼 권유가 많았지만 그는 “남편이 마음속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요”라며 “남편은 돌아가신 후 더 가까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별로 떠서”라고 말했다.

마흔둘, 꽃다운 나이에 혼자되어 30년째 살고 있는 그는 “외로울 때가 많았지만 신앙과 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혼자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귀한 분들의 성원과 손길이 없었다면, 이화에서 배운 이화정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꽃이 피기 위

해서는’이라는 시를 지었다. 이화 선후배님들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꽃이 그냥 스스로 피어난 것은 아닙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과 공기가 있어야 하듯이//

꽃이 저 홀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꽃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별과 나비가 있어야 하듯이//

꽃의 향기가 저절로 멀리까지 퍼진 것은 아닙니다/ 꽃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있어야 하듯이//

나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기도로 길을 내어주고/ 눈물로 길을 닦아준 귀한 분들 은덕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신/ 보이지 않는 그분의 섭리와 은혜가 있은 까닭입니다.

– 김소엽, 「꽃이 피기 위해서는」

글·김민희(국문 99)

이화 창립 129주년 기념식 열려

모교는 5월 29일(금)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창립 129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최경희 총장은 기념식사를 통해 "1886년 오늘, 이화를 창립하신 메리 F. 스크랜튼 선생님은 한 명의 학생에게 희망을 걸고 배움의 등불을 밝혔다"며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이화의 진취성과 도전정신은 이 땅의 두터운 차별과 편견의 벽을 넘어 여성 교육을 실현했을 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한국 여성의 최초를 만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화의 존재 이유는 명성이나 명예가 아닌, 소명과 실천에 있다"며 "오늘 이화의 창립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화의 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야 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이화정신이야말로 세계 최초로서의 최고를 견인하고, 혁신을 통한 성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최경희 총장과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을 비롯해 정의숙 전 이사장, 윤후정 명예총장, 신인령 제12대 총장, 이배용 제13대 총장, 김선옥 제14대 총장, 김영주 총동창회장, 주한대사 및 전현직 국회의원, 이화동창들이 활동하고 있는 기관장 등 교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음대 합창단의 축가와 기념식사, 10년·20년·30년 근속 교직원 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윤구 직원(입학팀)과 장연순 교수(섬유예술 전공), 박광우 교사(부속이화·금란중학교) 등 이 178명의 근속 교직원을 대표해 표창을 받았다.

이어 정재서 교수(중어중문학 전공)와 김광옥(식품

공학 전공) 교수가 제 11회 '이화학술상'을 수상했다. 정재서 교수는 자생적 한국 동양학인 제3의 동양학을 제창하고 동아시아 담론을 주도했으며 도교, 중국 신화 등 동아시아 상상력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독보적인 학문 경지를 이룩한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고, 김광옥 교수는 사람의 제품 인식 기전 및 감각 반응의 과학적 측정법을 연구하는 감각과학 분야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고 크게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념식에 이어 공관에서는 창립 129주년 기념 총장 초청 오찬이 진행되었다. 참석 귀빈과 이화의 후원자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최경희 총장의 인사말, 이화학술상을 수상한 정재서·김광옥 교수의 수상소감을 비롯해 학교발전기금 후원자에 대한 장명수 이사장의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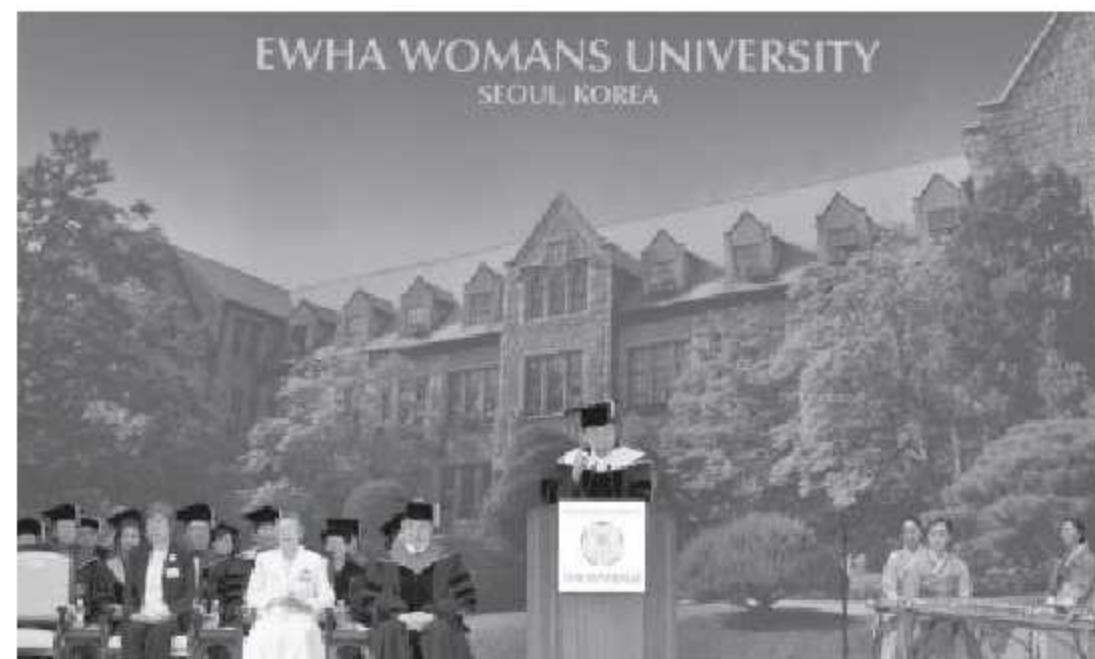
반기문 UN 사무총장, 명예 여성학 박사학위 받아

지난 5월 20일(수) 음악관 김영의홀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에 대한 명예 문학박사(여성학) 학위 수여식이 열렸다. 반 총장은 남성으로는 처음으로 명예 여성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덕애 대학원장은 추천사를 통해 반기문 총장이 UN 사무총장 취임 후 유엔 합의체 ‘UN Women’을 창설,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 운동과 남녀 균등 기회 보장 정책 등을 추진했고 임기 동안 UN의 여성 고위직 임원 수를 UN 역사상 가장 많이 늘리는 성과를 이루는 등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 여성 권한 증진을 통한 인권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사 대학원 위원회 의결을 거쳐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반기문 총장은 보다 많은 권한, 위엄, 권리를 누려야 마땅한 세계 여성들을 대표해 본 학위를 겸허히 수락한다는 인사말로 학위 수락 연설을 시작했다.

반 총장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은 도외시하면 세계는 발전할 수 없으며 여성들에게 대등하거나 더 많은 기회를 마땅히 주어야 한다”며 “이런 이유로 여성에 투자하고 여성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도록 해야 하며 여성의 지고 있는 무보수 돌봄 노동의 짐

을 더 많은 남성이 나눠 지는 ‘변혁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화여대는 한국에서 여성 역량 강화에 늘 선봉에 있었다며 한국 여성들이 정부와 기업에서 요직을 맡도록 제2의 물결이 일어야 할 때라면 2030년까지 남성과 여성의 지위를 50대 50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수여식에는 최경희 총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윤후정 명예총장, 신인령·김선옥 전 총장을 비롯해 유순택 여사 및 UN 대표단, 한명숙 전 총리,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지은희 전 여성가족부장관,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및 전·현직 국회의원, 주한 외교사절, 기업 대표 및 사회단체장 등 교내외 인사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화학당 설립자 스크랜튼 부인과 존 가우처 목사 후손들 모교 방문

4월 8일(수), 최경희 총장은 모교를 방문한 이화학당 설립자 메리 스크랜튼(1832~1909) 부인의 후손과 존 가우처(1845~1922)의 고손자들과 아령당에서 오찬과 환담을 가졌다.

이날 오찬에는 스크랜튼 부인의 고손녀인 샐리 제일과 그의 딸 필리파 채프먼, 존 가우처 목사의 고손자 존 가우처 베르네, 가우처 대학 이사장 메릴린 와쇼스키, 미국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협력총무이

자 이화국제재단 이사인 안드리스 설터, 모교 양명수 교목실장, 이경숙 전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스크랜튼 부인은 모교 전신인 이화학당을 설립하고 우리나라의 여성 교육과 선교 사업에 일생을 바쳤다. 스크랜튼 부인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 의사 부부도 의료 선교사로 이 땅의 의료 기술 발전에 힘쓰는 한편, 성서 번역 사업에도 공헌했다. 가우처 목사는 1885년 미국 감리회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파송

되도록 원조와 장려를 아끼지 않는 등 한국의 선교 사업을 위해 평생 노력했다.

이날, “선교사들이 세운 전 세계의 학교 중 이화여대의 큰 성공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후손들의 말에 최 총장은 “현재 이화는 2만 5000명 학생, 69개 전공, 12개 대학과 15개 대학원을 가지고 있는 여자대학으로, 유수의 남녀 공학보다 큰 규모의 대학으로 자리 잡았다”며 “특히 스크랜튼 부인의 고손녀

와 가우처 목사의 고손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그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과 기도로 이 기적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스크랜튼 부인과 가우처 목사의 후손 및 일행은 오찬 후 채플에 참석했고, 이화역사관을 비롯한 교내 투어를 통해 이화의 역사를 돌아보고 이화의 캠퍼스를 둘러보는 것으로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분단 극복을 모색하는 제2회 윤후정 통일포럼 열려

‘광복 70년, 분단 70년: 통일과 여성’을 주제로 한 ‘제2회 윤후정 통일포럼’이 5월 13일(수)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 포럼은 한국 최초 여성 헌법학자이자 제10대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한 윤후정 명예총장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분단 극복”이라는 신념에 따라 2013년부터 15억 원을 기부하면서 마련된 통일 논의의 열린 장이다. 이날도 분단 극복과 여성의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활발한 담론이 펼쳐졌다.

최경희 총장은 인사말에서 “이화여대는 오래전부터 교육과 연구를 통해 통일 연구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했고 북한·통일·여성 전문가 양성에 주력해왔다”며 “오늘 포럼을 계기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모든 논의에 젠더 관점이 가미되고 관련 이슈와 아젠다가 더욱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전 국무총리는 “오늘 포럼이 통일을 한발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사회에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축사를 하였고,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화에서 양성된 통일 인력이 통일 준비의 핵심 주역이 되어 크고 작은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담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후정 명예총장은 이제 왜(Why)보다는 어떻게

(How) 통일을 이룰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90년대 초부터 통일 연구와 담론을 진행해온 이화여대가 앞으로 더욱 통일의 성취 과제뿐 아니라 통일



에 대비할 사항을 연구·정리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교는 1998년 북한학 협동 과정 도입, 2000년 학부 과정에 북한학 연계전공 개설, 2005년 통일학 연구원 설립, 2013년 북한학 협동 과정의 북한학과 승격 등 일찌감치 북한 관련 여성 학자와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학문적 토대를 갖추고 통일을 준비해 왔다. 앞으로도 윤후정 통일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이러한 학문적 기틀을 밟거름으로 지속적이고 실현 가능한 통일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이화수목원에서 ‘큰 스승과 이화정신’을 기리는 추모 예배 가져

모교 창립 129주년을 앞둔 5월 19일(화), 김활란 전 총장, 김영의 전 이화학당 이사장, 김옥길 전 총장 등 일곱 분의 이화의 큰 스승을 기리는 추모 예배가 가평군 선촌리 이화수목원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추모 예배는 최경희 총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윤후정 명예총장, 김영주 총동창회장 등 80 여 명의 이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찬송과 기도, 성경 봉독, 김은희 교수의 특송, 양명수 교목실장의 말씀과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장명수 이사장은 “요즘 대학 환경이 나빠지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겪으신 어려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며 “오늘 이곳에서 여러 선생님들을 마음으로 만나면서 힘과 지혜를 얻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경희 총장은 지난 129년간 어려움 속에서 헌신과 인내와 사랑으로 이화를 이끌어온 스승님의 정신을 이화 구성원 모두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후정 명예총장은 수많은 노력 끝에 이화수목원 부

지를 매입하고 현재의 모습으로 조성하게 된 과정을 소개하며 “우리의 스승을 이곳에 모시게 된 이야기도 이화의 역사로 잘 기록되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교는 해마다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양화진과 가평 이화수목원을 찾아 이화를 위해 헌신한 스승들을 추모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모교, 각종 대학평가에서 좋은 성과 거둬

모교는 지난 5월 발표된 라이덴 랭킹 국내 종합대학 1위에 이어, 6월에 발표된 QS 아시아대학평가와 THE 아시아대학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라이덴 랭킹은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에서 매년 세계 대학이 발표한 논문 중에서 학자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논문 비율을 평가해 순위를 정하는데, 설문조사 방식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관적 평가 요소들을 배제하고 학술정보서비스기업 톰슨로이터의 데이터베이스만을 활용, 4년간의 논문을 분석해 순위를 정한다는 점에서 다른 대학평가기관의 평가방식보다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0년

부터 2013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을 집계한 이번 평가에서 모교의 인용 빈도 상위 10% 이내 논문 비율은 8.6%로, 포항공대와 카이스트(KAIST)에 이어 국내 종합대학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의 아시아대학평가에서는 모교가 ‘논문 당 인용수’ 지표에서 국내 대학 1위, 아시아 대학 4위를 차지했다. 해당 지표는 최근 5년간 발행된 논문의 인용수를 측정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모교는 지난해 대비 국내에서 2계단, 아시아에서는 6계단 순위가 상승했다. 17개국 507개 대학을 대

상으로 진행하는 QS 아시아대학평가는 논문당 인용수 지표 외에도 학계평판도, 졸업생평판도 등 9개 지표를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한다.

또 다른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타임즈고등교육(THE)의 아시아대학평가에서 모교는 국내 8위, 아시아 53위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보다 국내 2계단, 아시아 23계단 순위가 오른 결과이다. 교육여

건, 연구, 국제화 등 5개 부문 13개 지표 전반에서 점수가 상승했으며, 특히 논문당 인용수 지표는 13.4 점 상승해 전체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이처럼 모교가 올해 발표된 각종 대외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세계 최고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교수진과 학생들의 열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대학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UN Women과 MOU 체결 및 국제교류 협력 논의

모교는 지난 5월 18일(월)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이하 UN Women)과 모교생의 인턴십 기회 확대와 양성평등 및 여성교육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UN Women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 차별 철폐, 여성 권리 향상, 경제개발, 인권, 안보 부문의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2011년 1월에 출범한 국제기구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모교와 UN Women은 2012년 신규 체결 후 2014에 만료되었던 양자 간 MOU를 갱신하는 한편, 학부 4학년 학생과 졸업생 및 대학원생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MOU도 추가로 체결했다.

협정 조인식 후 최경희 총장은 훔질레 를람보 응쿠카(Phumzile Mlambo-Ngcuka) UN Women 총재와 마리 엘레나 존(Marie-Elena John) 총재 비서관과 함께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모교 여성학과와의 다양한 교류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경희 총장은 “학생들이 해외기업 및 국제기구 인턴십에 관심이 많다”며 “모교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훔질레 를람보 응쿠카 총재는 이에 “이화의 학생들이 UN Women 본부가 있는 뉴욕 외 세계 각지의 필드 오피스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滴滴보 응쿠카 총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민주주의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으며, 통상 산업부 차관, 자원에너지 장관, 문화예술과학기술부장관대리를 거쳐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남아공 첫 여성 부통령직을 역임했다. 2013년부터 UN Women 제2대 총재로 봉직하고 있다.

영화의 감동에 추억 여행까지

-국내 최초 캠퍼스 안 상설 영화관, 아트하우스 모모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내 상설 영화관이자 예술영화 전용관인 아트하우스 모모(이후 모모)가 개관 8년차를 맞았다.

ECC 지하 4층에 위치한 모모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미하엘 엔데의 소설『모모』와 한 편의 영화가 인생을 바꾸는 순간, 모먼트 오브 무비(Moment of Movie)를 합친 말이다. 모모의 운영자는 1995년 타르코프스키의 <희생>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예



술영화 전용관 동승시네마텍을 설립하고 한국 예술영화의 메카 씨네큐브를 안착시킨 영화사 백두대간이다.

모모는 이화가족의 선구자적인 안목과 백두대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예술문화공간이다. ECC 신축 때부터 건축가 도미니크 폐로에게 영화관을 염두에 둔 설계를 요구했을 만큼 모교는 이화인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유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영화관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의뢰를 받았던 모모는 90년대 초반 시네마테크 운동을 지지하고 이끌어온 것이 대학생층이었음을 기억해내고 다수의 영화인을 배출한 저력 있는 이화인을 다시 영화관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대학 시설의 상업화라는 우려를 딛고 모두의 기대 속에 개관한 이후 적극적인 마케팅과 모모다운 다채로운 영화 상영으로 관객층을 넓혀왔다. 현재 모모의 대학생 관객은 전체 관객 중 40%를 차지하고 있다. 모교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2014년에는 교양교육원 교과 과정에 ‘여성의 눈으로 본 세계 영화사’라는 정규 과목을 신설, 진행하는 등 대학 내 문화 공간으로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적의 관람 조건

136석의 상영관 두 개로 이루어진 모모는 최고의 예술영화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최적의 관람 환경을 갖추고 있다.

영화 감상의 첫 조건은 화질. 예술영화의 환상적인 화질과 색감을 즐길 수 있는 코닥 시어터의 영사 시설과 화면 가장자리를 일부 가리는 누드 마스킹 스크린을 갖춰 원본의 영상미를

100% 그대로 감상할 수 있다. 음향 시설도 최적의 맞춤형이다. 스피커 수가 21개로 비슷한 규모의 영화관에 비해 약 2배로 많고, 특히 서라운드 스피커 수가 많아서 입체적인 음향감과 음장감을 느낄 수 있다. 또 저음역대와 고음역대 모두 디테일이 잘 살아나도록 설치된 앰프와 오디오 전문 제작자가 제작한 수제 케이블 등 모모의 음향 시스템은 전문 음악 감상실을 방불케 한다.

앞사람에 의해 화면이 가리지 않게 충분한 경사도를 갖춘 편안하고 쾌적한 관람석, 시내 영화관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넓은 주차장, 관람 후 산책하는 아름다운 캠퍼스도 또 다른 장점이다. 관람 전의 자투리 시간에는 ‘앤의 다락방’에도 들러보자. 문학과 영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읽어볼 수 있는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매표소 왼쪽 복도 끝에 있다.



앤의 다락방

독특하면서도 스펙트럼 넓은 모모의 영화들

모모에서는 한 해 대략 150여 편의 예술영화가 상영된다. 외국 영화뿐만 아니라 홍상수, 김기덕, 이창동 감독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영화 감독의 작품은 물론 작품성 높은 독립영화도 만날 수 있다.

모모에서 가장 오래 상영되었던 영화는 2013년 5월 개봉한 〈길 위에서〉로 6개월간 상영되었고, 모모에서만 1만 5000명가량의 관객이 보았다. 모모에서만 볼 수 있었던 헝가리의 거장 벨라 타르 감독의 〈토리노의 말〉은 단관 개봉이었지만 깜짝 흥행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또 독립 영화로서 전 국민적 흥행의 단초를 열었던 〈워낭소리〉는 2009년 모모의 특별 기획전으로 다른 영화관보다 2주 먼저 상영되어 매진 사태와 폭발적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에는 〈천안함 프로젝트〉 〈슬기로운 해법〉 〈다이빙 벨〉 등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있던 문제작들을 연이어 상영하기도 했다.

모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신설

영화사 백두대간과 모모의 총괄 부사장인 최낙용 씨는 ECC 건물 설계 때부터 모모와 함께 해왔고 영화 수입에서부터 영화제 유치, 영화관 운영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모모가 걸어왔고, 걸어가야 할 길을 가장 잘 보여준 행사는 2011년 6월 10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1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명불허전: 임마르 베리만을 찾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

다. 세상의 평론가들과 영화감독들로부터 ‘감독의 감독’으로 추앙받는 임마르 베리만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스웨덴 대사관과 이화여대 대와홍보처,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과 저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영화 프로젝트였습니다. 베리만 감독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조망한 멀티미디어 인스톨레이션 전시회와 함께 〈산딸기〉 〈희생〉 등을 포함한 그의 영화 9편과, 그의 추종



베리만전

자인 페드로 알모도바르, 우디 앤런 등 9명의 감독 작품도 같이 상영했지요.”

이 행사와 동시에 진행되었던 교양 강좌 ‘모모영화학교’는 2013년 자발적 영화공부 모임인 모모 베리만 포럼으로 이어졌고, 모모 벤더스 포럼(2014), 모모 베르톨루치 포럼으로 영역을 넓혀가면서 매월 1회 전문 영화 강사와 일반인들이 모여 심도 깊은 영화 공부를 계속해오고 있다.

대학 내 문화 공간으로 주목받아

평상시 예술영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동창이라면 모모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모모큐레이터’는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영화 선정, 특별영화 상영회, 영화제 등 모모의 기획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트위터와 인터넷을 통한 홍보 활동, 홈페이지 제작이나 취재, 매수표원 등 극장 운영에 능동적인 주체로 활동할 수 있다. 올해 6기를 맞이하는 ‘모모큐레이터’에는 1년에 약 15명, 지금까지 약 10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으며, 소설가, 영화감독, 대학교수, 디자이너 등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얼마 전 개봉되었던 영화 〈차이나타운〉의 한준희 감독도 ‘모모큐레이터’ 출신이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운영회의에 참석하면 된다. 급여는 없지만 대신 영화 관람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가능하다.

매년 6회 이상 진행하는 ‘책 읽어주는 영화관’과 ‘음악 들려주는 영화관’ 프로그램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미 정이현, 강신주, 공지영 등 다수의 소설가와 저자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문학과 예술을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포크, 클래식, 유명 오케스트라의 내한공연 실황 등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음악 들려주는 영화관’도 색다른 감흥을 안겨줄 것이다.

모모만의 까다로운 영화 선정 기준

모모의 영화는 언제나,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그저 그런 영화가 아니다. 모모의 프로그램 머 조혜정 씨는 모모의 영화 선정 기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모모의 관객들은 예술영화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영화에 대한 애정이 높은 분들이죠. 그러니 한 편 한 편이 그런 분들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지요.

첫째는 보고 난 후 절대 후회하지 않는 영화, 무엇보다 믿고 볼 수 있는 영화로 관객들에게 감동과 기쁨, 양질의 문화적 체험을 선사할 수 있어야 해요. 둘째는 아카데믹한 영화죠. 상업적 목적을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라 예술적 가치가 높고 활발한 토론과 비평의 대상이 될 만한 작품으로, 고전의 반열에 오를 만한 클래식한 영화로 기억될 만큼 뛰어난 영화여야 하죠. 셋째는 트렌드를 좇지 않고 기존의 영화 언어, 사회적 통념을 깨는 독특한 영화 기법을 갖추고 있으며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선보이는 영화여야 합니다. 또 이제까지 관객들이 큰 관심을 보여주었던 테마, 예를 들면 여성, 음악, 종교 같은 테마를 갖고 있으면서 재미와 감동이 있는 영화들을 우선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모모가 주목하는 것은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영화제입니다. 스웨덴 영화제나 아랍영화제, 건축영화제, 여성영화제 등 모모가 함께한 영화제는 셀 수 없이 많지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특정한 시기에 개최되는 이런 영화제는 관객들에게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시각과 사회문화적 현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모모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지난 4월부터 모모는 모교 및 신촌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위해 ‘모모 100일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온오프라인의 전 채널을 동원하고 있다. 또 모모에서는 ‘모든 이화인들이 1년에 2편의 예술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아래 동창의 날이나 바자회같이 특정한 날에 할인혜택을 주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이화영화주간’ 같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오래가는 인연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이화인이나 교직원이라면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외에도 모모의 영화나 영화제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홈페이지(arthousemomo.com) 회원 가입을 통해 매주 받아볼 수 있는 뉴스레터, 영화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한 분은 국내 최초의 영화관 팟캐스트인 영다방(모모의 영화 보는 디락방, <http://www.podbang.com/ch/6441>),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omo.arduino/>)과 트위터(<https://twitter.com/arthousemomo>)를 이용하면 된다.

올 하반기에도 모모는 벌써 4회째를 맞이하는 스웨덴영화제와 제7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난민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제와 예술영화를 준비해놓고 있다. 뜨거운 여름 혹은 만추의 계절, 가족과 함께 예술영화도 보고, 스무 살 추억이 있는 캠퍼스를 걸어보면 어떨까 싶다.

글·윤혜숙(신방 86)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소장품 특별전 <조선백자>

모교 박물관(관장 장남원)은 개관 80주년을 기념하여 2015년 5월 27일(수)부터 내년 1월 30일(토)까지 1, 2층 전관에서 <조선백자, White Porcelain in the Joseon Dynasty> 특별전을 마련하고 있다. 모교 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도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조선시대 백자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흐름을 보여주는 다양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출품 유물만 600여 점 이상이기 때문에 단일 백자전 전시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전시회 주제는 조선 초에서 말까지 관요백자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던 의례용 기물과 연향용 용준(龍樽) 및 왕실용 명문 백자들을 선보이는 ‘조선왕실과 백자’, 출생과 죽음을 함께하는 의례기로 제작되었던 태호(胎壺), 제기, 고족접시, 명기와 묘지 등을 전시하는 ‘백자에 담긴 출생과 죽음’, 성리학적 이념을 실천했던 문인들의 가치관과 미감을 볼 수 있는 ‘문인문화의 유행’, 장수와 행복을 추구하는

다양한 길상문이 시문된 백자들을 전시한 ‘무늬로 보는 상징과 의미’, 그리고 관요 외에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지방 백자’의 단면을 드러내어 비교하는 내용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이 외에도 국보 107호 ‘백자철화포도문호’는 별도의 단독 전시실을 마련하여 특별한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설명적 전시 외에 최신 매체를 통한 심도 있는 관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박물관을 방문하는 많은 청소년과 일반 관람객의 지적 학습의욕을 돋기 위한 자료전시 공간도 마련하였다.

<조선백자>전을 통해 500여 년간 조선이 추구했던 왕조의 이념 및 예제 준행의 실천과정에서 만들고 진설했던 백자의 결백하고 견실한 격식과 상충부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애호하고 실용했던 풍부한 조형미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개관 80주년 모교 박물관의 연구 성과와 수집 방향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백자철화포도문호(白磁鐵畫葡萄文壺)
국보 제107호 / 조선 18세기 / H. 53.3cm



백자철화운룡문호(白磁鐵畫雲龍文壺)
보물 제645호 / 조선 17세기 / H. 45.8cm



백자철화매죽문시명호(白磁鐵畫梅竹文詩銘壺)
조선 17세기 / H. 35.3cm

■ 전시명: 조선백자

White Porcelain in the Joseon Dynasty

■ 전시기간: 2015. 5. 27(수)~2016. 1. 30(토)

■ 전시장소: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 2층 전관

■ 전시유물: '백자철화포도문호(국보 제107호)', '백자청
화송죽인물문호(보물 제644호)', '백자철화운룡문호(보
물 제645호)' 등을 포함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조선백자 600여 점

■ 주요 대여처: 가회민화박물관, 고려대학교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

■ 관람료: 무료

■ 관람시간

- 월~토: 9:30~17:00

- 휴관: 일요일, 공휴일, 2015. 8. 1(토)~8. 31(월)

-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19시까지
연장 관람

- 전시안내: <http://museum.ewha.ac.kr>

02-3277-3152

2015 하반기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문화예술 아카데미

〈조선시대 미술과의 만남〉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은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신설하
였다. 2015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문화
예술 아카데미 〈조선시대 미술과의 만남〉
은 상반기에서 하반기(2015년 9월 예정)로
변경되었다. 자세한 수강 일정은 추후 홍보
할 예정이다.

이화의 보물들을 웹상에서 세계인과 공유하다

모교 박물관은 문화유산을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 문화유산 온라인 전시 사
이트인 구글 컬처럴 인스티튜트(Google Cultural
Institute)와 협력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모교 박물
관 소장 명품 40여 점과 〈근대회화〉(전시기간: 2014.
11. 5~2015. 4. 11), 〈조선백자〉(전시기간: 2015.
5. 27~ 2016. 1. 30)를 'Google Art Project' 를 통
해 디지털 전시로 2015년 5월 14일(목)에 공개했다.

또한 지난 5월 22일(금)에는 아시아·유럽박물관
네트워크(ASEMUS)의 'VCM(Virture Collection
of Masterpieces)'에 가입하여 VCM 홈페이지
를 통해 이화의 보물 30점을 공개 및 공유하였다.
VCM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원 국가
의 박물관 간 국제협의체인 ASEMUS에서 구축한
웹상의 가상명품박물관으로, 박물관들의 문화교류

를 통하여 국민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2007년 만들어졌다.

〈Google Art Project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보기〉

www.google.com/culturalinstitute/collection/ewha-womans-university-museum?hl=ko&projectId=art-project

〈VCM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보기〉

<http://masterpieces.asemus.museum/museum/detail.nhn?museumId=1185>

동창 유물기증 소식

• 엄정윤(자수 49, 섬유예술학과 명예교수, 1992 대
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흉배(胸背) 13점 및 보(補) 3점, 총 16점의 자수 재현
작품(20세기)

• 정희정(식영 89)

김용진(金容鎮, 1878~1968) 작 천도도(天桃圖, 58×
154, 종이에 수묵담채)

“이건희 교수님은 친정엄마 같은 분! 졸업생 일터 일일이 찾아다니며 응원하셨죠”

국내 '재벌그룹 연구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건희 명예교수는 이화여대 경영학과 발전사의 산증인 같은 인물이다. 모교 경영학과 정원이 30명에 불과하던 1976년에 조교수로 임명돼 교내·외적으로 경영학의 위상이 격상되는 2003년까지 28년 동안 모교에 봉직했다. 2003년 2월 정년 퇴임 후 모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로 임명돼 학자로서의 길을 꾸준히 걷고 있는 이건희 교수. 이 교수와 학번이 제각각인 그의 제자들 1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모교에서 동창의 날 기념식이 있던 지난 5월 29일(금) 오후 3시, 이화 신세계관에서 만난 스승과 제자의 대화는 두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애초에는 임혜란 경영대 동창회장 등 81년 졸업생 3~4명이 모이는 조촐한 자리였으나 이건희 교수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자리라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몰려들었다.

참석자

이건희(모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임혜란(78), 문인숙·백신미·손향아·이미자·정현주(81),
김인환(82), 최명희(88), 현영란(89), 박소라(05) 동창

이건희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감회가 새롭네요. 오늘 동창회 행사를 통해 이대 경영학과를 위시한 경영학의 달라진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경영학과 강의실 변천사만 봐도 그래요. 경영학과 강의실은 학관에서 본관으로, 포스코관과 이화 신세계관으로 이동했는데, 강의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서 작은 방에 짐만 맡겼다 찾아오기도 했지요. 30명이던 정원이 서서히 늘어서 내가 경영학과장이던 1992년에 127명으로 늘었던 기억이 나요. 당시 한국 자본주의의 개척자들인 구인화·구자경(LG), 최종현(SK), 박승직(두산) 회장 등을 연구했는데, 국내 대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는 시기와 이대 경영학과가 성장한 시기가 맞물려요. 허리케인 같은 폭풍우 속을 뚫고 온 기분이 들어요.

임혜란 맞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경영학과는 30명 정원에 교수님이 네 분 계셨어요. 경영대 동창회장을 3년째 맡고 있는데, 현재는 경영학과 교수님만 마흔 분이 넘으시더군요. 지금 교수님 수가 당시 학생 수보다 많아요(웃음).



왼쪽부터 손향아·최명희·문인숙·김인환 동창, 이건희 명예교수, 임혜란·이미자·정현주 동창

손향아 저는 이건희 교수님이 학과장이실 때 첫 대학생 조교였어요. 모교에 대학생 조교 제도가 도입된 후 대학원 1호 조교였죠. 참 오붓한 분위기였어요. 이건희 교수님이 MT 가서 가마솥에 밥을 해서 카레라이스 해주시던 생각이 나네요.

임혜란 이건희 교수님이 회를 사 가지고 와 버스에서 학생들에게 돌리던 기억도 나요. 이건희 교수님은 교수님으로서 권위의식이나 특권의식 같은 게 없으셨어요. 늘 편안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푸근한 이미지로 떠올라요.

김인환 저는 이건희 교수님에 대한 기억이 정말 특별해요. 학교가 친정이라면 이건희 교수님은 친정엄마 같은 분이라고 할까요? 엄마처럼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당시는 경영학과 졸업생이면 누구나 원하는 직장을 골라 가던 시절

이었어요. 이건희 교수님은 학생들을 취업시킨 후 그 회사를 일일이 다니시면서 인사를 했어요. 저는 교사로 취업을 했는데 학교에 오셔서 “혹시 불편한 점 없느냐, 건의할 게 없느냐?”며 챙겨주셨죠.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우리 학생 잘 부탁드린다”며 인사도 하셨어요.

백신미 제가 2년 동안 교수님을 조교로 모셨는데, 조교로서 첫 업무가 취업 현황과 스케줄 정리였어요. 취업 스케줄표를 보면 ‘오늘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등등의 일정이 빼곡했죠.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취직은 꼭 시켜주셨어요. 학생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교수님이셨죠.

문인숙 저 역시 이건희 교수님 하면 따뜻한 기류부터 떠올라요. 오늘 졸업 30주년 기념행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가장 먼저 이건희 교수님이 생

각났죠. 그런데 교수님께 고백할 빛이 있어요. 재학 당시 일이에요. 제가 취직을 꼭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이건희 교수님께서 부르셨어요. 토자공사 취직 티켓이 있었죠. 면접을 보러 가기만 하면 합격이 보장된 자리였어요. 당시 토자공사는 대전에 있었는데 저는 마산 출신이라 대전에서 직장생활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아예 면접을 보러 가지 않았어요. 다른 학생한테 양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신의 직장’을 마다하는 게 죄송해서 교수님께 말씀도 못 드렸네요. 그게 지금까지 내내 마음에 남아 있어요.

이건희 그런 일이 있었구먼. 하하. 당시 이대는 입학과 졸업만 하면 된다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어요. 경영학과에 온 학생인데 본인이 취업을 원한다면 반드시 시켜야 한다는 쪽이었지요. 신랑한테 넘어가기 전까지는 내 학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이었어요.

박소라 저는 여기 계신 선배님들에 비하면 까마득한 후배입니다. 2005년에 졸업했고, 2012년에 모교 경영학과 전임강사가 됐으니 이건희 교수님께 직접 배울 기회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희 교수님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레전드’ 같은 존재시죠. 모교 경영학과의 큰 행사 때마다 늘 이건희 교수님과 홍부길 교수님 얘기가 나와요. 모교 경영학과의 역사를 만드신 분으로요.

이건희 홍부길 교수도 나도 학교 살림 때문에 자리를 뜨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출장이나 교육 등 중요한 행사가 있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

지요. 가게 되더라도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마음은 늘 학교에 있었지요.

김인환 교수님의 학교 사랑은 유별나셨어요. 저희에게도 느껴졌고요. 저희가 교수님 댁에 세배도 가고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남자 제자는 많지만 진정한 여자 제자는 없다’는 세간의 선입견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교수님 댁은 도곡동이었는데, 당시 도곡동은 미나리 밭이라 몇 시간 걸려서 닿았던 기억이 나네요. 사모님이 떡국도 끓여주셨죠.

이건희 맞아 맞아. 기억나요. 당시 도곡동은 아주 척박했어요. 강남에는 병원 하나 없어서 큰 병원에 가려면 강북까지 가야 했어요. 세배하러 왔는데, 눈길을 헤치고 오느라 신발이 다 젖어서 안쓰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임혜란 이건희 교수님은 모교 경영학과에서 다수의 여성 공인회계사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어요. 지금 경영학과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서지희 삼정회계법인 전무도 그중의 하나이지요.

백신미 맞아요. 이건희 교수님이 공인회계사 준비반을 만드셨어요. 당시 다른 학교는 공인회계사 선배들도 많고, 준비생도 많았지만 우리는 공인회계사 선배도 없었고, 준비생이 소수였어요. 교수님이 공인회계사 준비반을 만드셔서 도서관에 별도로 자리를 만들고 정보도 공유하고 힘을 합쳤죠. 서지희 동창이 저와 동기인데, 대학원 다니면서 합격했어요.

최명희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원서로 배웠던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당시로는 흔치 않은 일이었죠. 지방에서 온 학생들은 영어가 특히 약한데, 원서로 배우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웃음). 친구들끼리 페이지를 나누어서 스터디를 하고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식으로 했어요. 할 때는 힘들었지만, 공부다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이 특별하고 그때 친구들과 친해졌어요.

이건희 원서를 구하기 힘들어서 내 책으로 제본을 했는데, 다 분해해서 책이 엉망이 돼버렸던 것 같네요.

임혜란 제본을 흥릉 근처 KIST까지 가서 했죠. 지금은 자료의 흥수 속에 묻혀 살지만 당시만 해도 필요한 기사 하나 찾으면 보물을 찾은 듯 귀했어요.

이건희 당시 윤후정 총장님은 ‘우리 학생도 서울대, 연대, 고대의 남학생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재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지금 학생들이야 다들 영어를 잘하지만 당시 영어는 몇몇 소수의 영역이었지. 특별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라고 봤어요. 그때만 해도 경영학은 크게 주목받지 못한 편이라 경영학과에서 영어 원서로 공부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어요. 경제연구소는 있었지만 경영연구소는 없었고, ‘경영학도 학문이 냐’는 분위기였지요. 경영학과보다 경제학과 정원이 훨씬 많았고, ‘상학(商學)’을 한다고 하면 경제학을 붙여서 ‘경영경제학’이라고 했어요.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서 ‘국가 경영’ ‘병원 경영’ 등 ‘경영’이 사

회 각 분야에서 조명받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죠.

정현주 경영학과가 법정대학 소속이었어요.

이건희 내 이력을 보면 경영학과의 발전사가 보여요. 1996년까지 법정대 학장이었다가 이듬해부터는 상경대 학장으로 바뀌어요. 경영학과가 법정대 소속이었거든요. 상경대의 위상이 점점 커져서 후년부터는 경영대학이 단독체제가 돼요. 경영대학 내에는 경영학과만 존재하는 거죠. 그만큼 둑치가 커진 거예요.

손향아 모교 경영학과가 작년에 50주년을 맞았죠. 동창회 일을 맡아 행사를 진행하면서 동창의 힘을 새삼 느꼈어요. 특히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경영학과 출신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뿌듯했죠. 요즘 후배들을 보면 정말 밝고 당당하고 똑똑해요. 우리도 선배 역할을 열심히 하느라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후배들은 한 발 더 나아가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해 후배들의 후배들에게 더 당당한 선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희 경영학과 동창회 선배들을 보면 딱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요. 매년 동창회 명의로 장학금도 꾸준히 주고. 이런 선배와 후배들이 있는 한 이대 경영학과의 발전은 무궁무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담 진행 및 정리·김민희(국문 99)

전자정부 정착에 앞장서 온 박상희 동창

■ 안녕하세요. 박상희(전산 85) 동장님. 국장급 대우인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내 스마트서비스과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정부의 핵심적인 전자정부 과제를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여러 부처에서 처리되는 업무와 정부기관 간 공동 활용이 필요한 정보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부처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국민에게 맞춤형 생활정보를 실시간 서비스하는 일 이지요. 예를 들면 민원24, 홈텍스, 나라장터, 국민 참여포털 같은 것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요즘 추진하고 있는 일 중 하나는 공공 분야에 스마트워크 환경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원래 근무지가 아닌 주거지 인근 지역이나 출장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원격근무 용 업무공간인 스마트워크센터가 그것인데요, 시간 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일과 삶의 조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 대학 졸업 후 바로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계속 전산 관련 보직에만 있었나요? 남성 위주의 공직에서 나



름대로 지켜왔던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대학 4학년 여름방학에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 7급 채용시험에 합격해서 졸업하던 1985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는 전산 관련 업무를 했고, 지금의 보직을 받기 전까지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장, 중앙공무원교육원 정책교육과장, 행정안전부 노사협력담당관 같은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맡았어요. 기술직 공무원으로서는 예외적인 경우였죠.

요즘은 중앙부처에도 여성 공무원들이 절반 가까이 될 만큼 늘었고 그중 4급 이상이 10%를 넘어서 고 있지만 제가 서기관, 과장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부처에서 1~2명 정도로 소수였죠. 관심의 대상이 되다 보니 일하는 방식, 직원들과의 관계, 옷차림 하나 까지 늘 조심스러웠지요. 그런 상황이었지만 기술직

여성이라는 소수자의 입장을 핸디캡이 아니라 장점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지금까지 제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의 부드러움과 섬세함, 모교에서 배운 책임감과 전문성,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적극성과 성실함, 부드러운 소통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거의 20년 넘게 전산 관련 일을 하셨으면 나름의 성과도 있었을 텐데요, 예를 들면 포상 같은 것 말이죠.

정부 내에 대형컴퓨터를 대신해 개인용 컴퓨터가 도입되던 초기에는 정부 인사, 급여, 조직, 상훈 등 50여 종에 달하는 업무를 전산화해서 정부기관에 보급하게 되었는데 이 일로 행정업무 전산화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어요. 또 정부 최초로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 처리를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을 개발하고 1998년 사무관자격으로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여러 장관들 앞에서 개발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어요. 그 후 정부 물품관리 시스템 개발로 대통령 표창을, 서기관 시절엔 전자서명 인증체계와 정부백업센터 구축, 정부 통합전산센터 설계 등 정보보호 정책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정보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어요.

일반 행정직인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정보화과장으로 일할 때는 정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개발해서 공무원 채용, 임용, 교육훈련, 성과관리 등 인사관리 전반을 정보화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안의 인사 혁신을 지원하기도 했지요.

■ 1985년 전자계산학과(지금은 컴퓨터공학과)의 1회 입학생인데, 당시에는 생소했던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고등학교 때 우연히 서울대 전자계산학과에 다니던 친구 언니의 편지카드를 보게 됐어요. 정해진 위치에 구멍이 있고 없고에 따라 문자, 숫자, 기호 같은 디지털 정보가 기록된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수학을 좋아하던 터라 그때부터 전자계산학과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마침 모교에 관련학과가 신설된 거예요. 딸은 무조건 이화여대에 가야 한다는 부모님의 바람과 희망 전공이 절묘하게 맞았던 셈이죠. 물론 그때는 이렇게 빨리 인터넷 세상이 올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요.

■ 신설학과에다 신학문이기 때문에 교수님도 학생들도 꽤 힘겨운 시절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참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추억 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과의 특성상 전공 수업에는 컴퓨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과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실습 프로그램 과제를 편지카드로 쳐서 제출하면 조교가 카이스트에 가서 컴퓨터로 돌려 결과를 받아오는 데 1주일이 걸렸어요. 프로그램 문장 중에 ‘.’이 하나 빠진 다든지 하는 등의 오류가 있으면 그 과정을 다시 해야 했어요. 그렇게 2년을 보내고 3학년 때 드디어 중형 컴퓨터(VAX780)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12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컴퓨터 한 대로 실습해야 했기 때문에 새벽별 보고 일어나 공학관 건물이 있는 언덕배기를 등산하듯 올라가 실습 순서를 적어놓고 기다리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나마 순서가 되어도 컴퓨터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서 프로그램 하나 캠파일하는 데 보통 30분은 기다려야 했어요. 조마조마하게 결과를 기다리면서 먹던 컵라면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네요.

■ 대학 시절, 힘이 되어주신 스승님이 있다면요?

모교에 전자계산학과를 만들고 후에 대학원장 까지 지내셨던 이기호 교수님을 잊을 수 없어요. 교수님은 늘 자기주도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가정에 안주하지 말고 전문인으로서의 역량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대학교 3학년 때 동기 중 한 명이 재미교포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결혼은 졸업하고 해도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학업을 포기하느냐며 무섭게 화를 내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쉽게 포기한 것에 대해 화가 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후로도 교수님은 처음 여성정보인협회를 만드는 등 온몸으로 선구자적이고 프로페셔널한 삶을 사시면서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어요.

■ 직장 여성들이 평생 갖고 사는 딜레마는 가사와 직업의 균형을 잡는 일인데요, 부이사관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돌이켜보면 워커홀릭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신없이 쫓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전까지의 행정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을 주도하는 데서 오는 부담감도 엄청 컼고요. 더구나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남성 중심의 공직사회에서 여자로서 버티기 쉽지 않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보호받고, 적당히 봐주는 건 웬지 싫어서 더 열심히 노력했지요.

일에 매달려 살다 보니 서른다섯이라는 늦은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가정을 갖는다는 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니 매사가 서툴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직장 여성이라고 슈퍼우먼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똑같은 비중으로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나머지는 무엇이 최선이고 효과적인가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준 남편과 반듯하게 자라준 아들에게 더 고맙고 감사해요.

■ 공직자로서 또 개인으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세계 198개국을 대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정보화 인프라, 대국민 서비스 등 전자정부 수준을 기준하는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수상한 쾌거는 개인적으로 지나간 시간을 보상해주는 듯해서 감격스러웠죠.

올해 저희가 목표로 하는 전자정부 사업은 국민 개개인의 부분적 불편을 해소해주는 차원을 넘어, 국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단계로까지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전자정부 관련 기술력은 30여 개 국가 정부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최근 3년간 140건 이상의 수출로 12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정도예요.

처음부터 전자정부 관련 일을 해왔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정년까지는 제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싶어요. 퇴직 후에는 개발도상국에 전자정부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 기여하고 싶고 재능 기부를 통해 지역민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싶어요. 그것이 지난 30년 동안 이화로부터 받은 혜택을 세상에 되돌려주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글 · 윤혜숙(신방 86)

도서관 출입은 입구에서 학번, 이름만 확인하면 가능 자료대출 및 열람실 이용은 유료회원 가입해야

요즘은 동네 도서관을 찾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원하는 도서가 없을 때가 가끔 있다. 가까운 곳에 구립이나 시립 혹은 국립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모교의 중앙도서관을 이용해보면 어떨까? 지적인 열정과 청춘의 희망이 이글거렸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중앙도서관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른다.

올해 3월 중앙도서관 2층 홀은 역대 총장 및 재직교원의 저·역서를 비치하

고 있는 이화 컬렉션과 신간 및 인기 도서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오픈된 공간의 자유로움과 아늑함을 주는 1층 라운지를 비롯하여 더 많은 동창들의 이용을 기대하고 있는 중앙도서관의 이용법을 알아본다.

동창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단순히 자료와 도서를 열람하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도서관 입구에서 학번과 이름을 알려주면 된다(이화가족카드 이용 가능). 자료 검색이나 복사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대출은 불가능하다.

도서를 대출하거나 좌석제 열람실, 영화DVD와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료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2015년 현재 졸업생 약 3400여 명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도서관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다만 중앙도서관의 좌석제 열람실은 1년에 네 차례 재학생들의 시험기간 동안만큼은 이용 자제를 부탁한다고 도서관 측은 당부하고 있다. 유료회원 가입 및 회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대출실(02-3277-3129/ circula@ewha.ac.kr)



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도서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전자저널, 이북 등의 전자 자료의 경우 웹에서는 동창들의 접근이 불가능 하지만 도서관을 방문하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외국학술지지원센터에서는 교육·사회·예체능 분야 외국 학술지를 수집·보존하여, 동창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무료 문헌복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http://fric.ewha.ac.kr>).

한편 도서관에서는 대학의 연구학습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아 선별, 등록하고 있다. 교양 및 학술자료의 기증을 원하는 동창은 도서관 홈페이지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FAQ-기타’ 부분에서 자료기증 안내사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유료회원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예치금으로 운영했을 당시 예치금을 넣고 장기간 도서관 이용을 하지 않은 동창은 도서관으로 연락하면 예치금을 100% 환불받을 수 있다. 해당 동창은 도서관으로 이메일 주소나 변경된 전화번호를 알리면 된다.

중앙도서관 이용시간

- 자료실 평일 (학기 중) 09시~22시
(방학 중) 09시~19시
토요일 09시~15시
- 자유열람실 24시간(24시 이후 익일 5시까지는 출입통제)
- ECC열람실 06시~22시(매일)

글·전세영(사학 95)

대학(원)소식

대학(원) 순서로 계재

사회과학대학

회장 김미령(신방 69)

학장 및 각 과 주임교수 초청 간담회 개최

2월 28일(토) 석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구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임원진을 구성했다. 새 임원으로 회장 김미령(신방 69), 고문 이양준(정외 70), 감사 김이경(문정 77), 총무 양소혜(경제 88), 서기 오은혜(소비 05) 동창이 선임되었다.

4월 20일(월)에는 함인희 학장, 이진 부학장을 비롯한 9개 학과의 전공 주임교수와 동창회 임원이 케세이호에서 오찬을 나누며 모교 소식과 동창회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장 및 교수 11명과 동창회 임원 10명이 참석한 이 모임에서 함인희 학장은 융합형 커리큘럼으로 개편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소식을 전했고, 김미령 동창회장은 사회과학대 동창회 장학기금을 확충하여 후배들에게



이화장학후원회 이사 위촉장을 받은 사회과학대 동창회
(왼쪽 장명수 이사장, 오른쪽 김미령 회장)

힘이 되는 동창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각 과 동창회장들은 그동안의 동창회 활동을 해당 주임교수에게 전하며 학교와 동창회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특히 재학생과 졸업 동창 간의 멘토 멘티 활동이 보다 많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과학대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에 모두 동의했다. 이날 모교에서는 각 과 동창회장들에게 예쁜 헝겊가방을 선물했고, 각 과 동창회에서는 해당 주임교수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여 전달했다.

한편 5월 1일(금) 모교 이삼봉홀에서 열린 제9회 이화장학후원회에서 사회과학대 동창회가 이화장학후원회 이사 위촉장을 받았다. 사회과학대 동창회는 동창회 장학기금 5000만 원을 약정하고 2010년부터 매년 200만 원씩 납입, 2015년 5월 현재 1000만 원을 입금했으며, 그동안 7명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사회과학대 학장 및 각 과 주임교수 초청 간담회

사범대학

회장__신경희(수교 77)

동창의 날 합창제 우승 및 동창 합창단 창단

5월 29일(금) 사범대 동창 합창단을 창단하였다. 앞서 동창의 날 행사의 하나로 치러진 합창제에서 사범대가 9개의 합창단 가운데 우승한 여세를 몰아 정식으로 동창 합창단을 결성하기로 했고, 초대 단장으로 이미옥(영교 79) 동창을 추대하였다. 이번 합창제를 준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단결을 보여주었던 동창들은 앞으로 활발한 합창단 활동으로 사범대 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지난 3월에는 사범대 동창회 장학금 전달식이 사범대 학장실에서 있었다. 사범대 동창회는 우수한 학업역량과 미래 여성 지도자로 성장할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인재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4학년 학생 한 명에게 매 학기 전액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과학교육과 4학년 최지연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동창의 날 합창제에서 우승한 사범대 동창 합창단

의과대학

회장__오혜숙(의학 78)

'TRUST 동창회'를 슬로건으로

제20대 집행부 출범

3월 7일(토) 오후 4시 30분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22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학술강연이 있었으며, 올해의 이화인으로 정미경 동창(34기)을 추대하였고, 58명의 장학생에게 1억 7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번 총회에서 'TRUST(신뢰의) 동창회'를 슬로건으로 제20대 오혜숙(오혜숙산부인과) 회장의 집행부가 출범하였다.

4월 7일(화) 오후 7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0대 집행부의 첫 행사로 2015년 제1차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참석이사 28명, 위임이사 30명과 집행부 전원이 참석하여 새로운 사업계획과 마곡병원 건립 기금 모금방법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4월 19일(일) 오전 9시에 열린 안산 자락길 걷기 대회에는 103명의 회원이 참여하였다. 모교 신촌 캠퍼스 학관 앞에서 출발하여 안산 자락길(봉원사-



의대 안산 자락길 걷기대회



의대 이포사·이예누의 봄 올레누리기

무악정-메타세쿼이아 숲길, 독일 전나무 숲길-숲속 무대-봉원사)을 걸은 뒤 이화학당에 모여 장명수 이사장이 베푸 오찬을 들었다. 그 후 의예과 첨단강 의실을 둘러보는 캠퍼스 투어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5월 16(토), 17일(일) 제주에서 열린 이화예술동 호회(이예누), 사진동호회(이포사)의 ‘봄 올레누리기’ 행사에는 24명의 회원이 참여하였다.

간호대학

회장_김진향(간호 73)

고 이정애 교수 61주기 추모 예배

2월 13일(금) ECC 이삼봉홀에서 57회 졸업생의 간호메달수여식을 가졌다. 졸업생 및 학부모, 간호



간호대 고 이정애 교수 추모 예배

대 동창 등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김가현 외 87명의 졸업생에게 메달을 수여하였다.

5월 13일(수) 가평 이화수목원에서 간호학부 교수, 동창, 학생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이정애 교수의 61주기 추모 예배가 있었다. 이날 예배에서는 이자형 명예교수의 고 이정애 교수에 대한 소개 및 이화간호 역사에 대한 강의로 고 이정애 교수를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고 이정애 교수는 이화학당 대학과 졸업 후 1928년 하와이로 유학하여 간호학을 전공한 한국인 최초의 간호사로 1937년 영국에서 개최된 ICN 대회에도 한국 최초로 조선을 대표하는 간호협회 회장으로 공식 참가한 바 있다. 이자형 명예교수는 고 이정애 교수의 한국 간호의 선구자로서의 공로와 역사적 의의를 전하며, 이화간호 역사 재정립을 위한 동창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약학대학

회장_정용희(약학 75)

정기 임원·기대표회 및 ‘화합의 날’ 행사 개최

3월 26일(목) 오전 11시 역삼동 루안에서 임원과 각 기의 대표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임원·기대표회가 열렸다. 회장 인사와 각 부 보고가 있었고, 이경림 약대 학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아승진 교수가 새 학장이 됨에 따라 이임 및 취임 인사가 있었다. 정준순 감사는 총동창회 부회장에 선임되었다. 약대 건축기금 모금현황 보고에서는 16억여 원을 모았다는 소식과 함께 임원과 기대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각 기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4월 7일(화) 13기 동창이 원장으로 있는 정원노인 요양원 및 치매병원을 동창 20명이 방문하여 후원



약대 화합의 날

금을 전달하고 노래와 무용단의 춤으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렸다.

4월 28일(화)에는 용산가족공원에서 제34회 '화합의 날' 행사가 열려 57년 졸업한 동창부터 90년에 졸업한 동창까지 117명이 참가하였다. 올해 졸업 40주년을 맞은 26기 동창들이 준비한 점심을 함께 하고 보물찾기와 장기자랑을 하며 푸르른 신록 속에서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창의 날 행사가 열린 5월 29일(금) 오전 이승진 학장이 졸업 50주년·30주년을 맞은 동창과 합창단을 위해 교수휴게실 앞에 다과를 마련하였다. 이날 합창대회에서 약대 동창회 합창단은 조용필의 <단발머리>로 2등상을 수상하였다.

리' 5부작으로 방영하기도 한 이곳은 전직 교사인 이인숙 동창의 부군 김동선 씨가 시력을 잃은 아내를 위해 만든 사설 박물관이다. 7~80년대 초등학교 교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에서 선배들은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고, 후배들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휴식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다음으로 강화 해든 뮤지엄에 들러 이옹노, 이우환, 김환기 등 우리나라 근대 미술의 걸출한 작가들의 작품을 관람했다. 마지막으로 전등사로 이동해 경내 곳곳과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전국 최고의 사고인 정족사고(鼎足史庫)를 둘러보았다. 전등사 아래 주막에서 도토리묵에 강화의 명주 인삼동동주를 마시며, 교수와 선후배의 정을 돈독히 하고 하루가 짧게 느껴진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마쳤다.

정책과학대학원

회장__최영은(08)

선후배가 함께한 테마여행

4월 25일(토) 신입생 환영회를 겸해 원장과 교수, 재학생이 함께 나들이에 나섰다. 첫 방문지는 지난 연말 모교 총동창회 송년회에서 '아름다운 이화 인상'을 받은 이인숙 동창이 운영하는 덕포진교육박물관이었다. 2013년 KBS 인간극장에서 '풍금소



정책과학대학원 테마여행-덕포진교육박물관

과·학부소식

과(학부) 순서로 계재

영어영문학과

회장 이정숙(77)

‘영학회의 밤’ 성황리에 개최

2년에 한 번 열리는 ‘영학회의 밤’ 행사가 5월 29일(금) 양재동 엘타워에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330명의 동창과 원로교수들을 초대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이정숙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인문대 학장 오정화(76) 동창의 축사, 최혜원(89) 동창의 영문과 소식 보고, 졸업 50주년 재상봉 동창(대표 최계자(65))과 49주년·30주년 재상봉 동창의 기부금 전달로 이어졌다. 특별히 고 김선숙 교수의 뜻을 기려 미국 거주 교수(대표 문인숙)들이 보낸 장학금을 조정호 교수가 장학생에게 전달했다. 이어 장학금과 신축 기숙사 건립 기금 모금현황(김영자 고문(61) 1억 원 쾌척, 총 1억 6610만 원 약

정, 현 영문과 교수 7800만 원 약정) 보고, 동창 소식 등으로 1부 순서를 마무리했다. 전체 사회는 김혜정(72) 부회장이 맡았고 서초구청장 조은희(84) 동창이 만찬 전 건배사를 했다. 동창들의 나눔은 풍성한 경품행사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50주년 재상봉 동창의 합창을 비롯하여 최세훤(66)·이영숙(68) 동창의 독창, 신사임당상을 수상한 김소엽(65) 동창의 시낭송, 재즈 공연 등 볼거리가 풍성했다.

사학과

회장 한혜련(75)

제천 일대로 봄 정기답사 다녀와

3월 26일(목) 석란에서 간사회를 열어 지난 한 달 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동창회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4월 23일(목) 간사회 봄 정기답사로 제천 일대 배론성지, 정방사, 장락리 칠층 모전석탑, 의림지 등을 다녀왔다. 사학과 동창회 간사회의 답사는 봄, 가을 일 년에 두 차례 진행되는 전통 있는 행사로 참가자 모두가 사학과 동창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5월 28일(목) 석란에서 간사회가 열렸다. 한혜련 회장은 ‘올해의 이화인’으로 백옥경(85) 동창이 선정되었다고 보고하였고, 더불어 9월로 예정된 총동



영문과 영학회의 밤



사학과 간사회 몸 정기답사

창회 바자회에 관한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날 간사회에 앞서서 고문단 회의가 있었다.

사회복지학과

회장__한인영(72)

두 차례 선후배 교류증진 모임 가져

재학생과 동창들이 함께 모이는 선후배 교류증진 모임을 개최하였다. 이 모임은 동창회와 학과의 공동 주최로 이루어졌으며, 사회복지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사회복지학과 재학생들에게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경험을 선배들에게 듣고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동창들에게는 서로 네트워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선후배 교류증진 모임은 한 학기에 두 번 개최된다. 3월 17일(화)에는 세계적인 아동복지기



사회복지학과 선후배 교류 증진 모임

관 Save The Children에서 본부장으로 활동하는 송혜승(39기) 동창의 발표가 있었고, 4월 21일(화)에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태화샘솟는집 팀장으로 활동하는 배은미(44기) 동창의 발표를 들었다. 한인영 회장은 앞으로 매 학기 좋은 만남을 기획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회장__석영인(77)

학부명이 바뀐 후 연 첫 총회에 100여 명 참여

2015년도부터 학부명이 새롭게 바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의 동창회 총회가 4월 28일(화) 11시 30분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에서 개최되었다. 100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총회

명이 넘는 동창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 명예교수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였다. 정겨운 이야기와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했던 총회는 19대 임원진이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20대 동창회 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신임 동창회장에는 석영인 동창이 선임되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박물관 투어 네 번째 모임이 3월 12일(목) 가구박물관에서 열렸다. 가구박물관은 2011년 미국 CNN이 꼽은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기 위해 만든 곳이다. 5차 박물관 투어는 6월 11일(목)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에서 진행했다.

수학과

회장__김기원(81)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 개최

2015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가 4월 27일(월) 저녁 6시에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100여 명의 수학과 동창 및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총회는 특히 학창시절 꽃이 만발했던 봄의 이화교정을 떠올리며 설레는 마음을 안고 마련한 자리여서 모두가 그 시절로 되돌아간 듯 지난 추억을 되새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편치 않은 몸으로 멀리에서 참석한 송순희 교수가 함께한 자리여서 더욱 뜻깊었다.



수학과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

물리학과

회장__김혜영(83)

창립 60주년 기념 동창의 밤 행사

올해로 학과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5월 30일

(토) 오후 4시 30분에 종합과학관 102호에서 물리학과(전건상 주임교수) 주관으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양현해 교목의 개회기도를 시작으로 윤영대 자연과학대 학장, 김승환 한국물리학회장, 민병주 의원의 축사를 비롯하여 '자랑스러운 물리학과 동문상' 시상이 이어졌다.

같은 날 오후 6시에 학과 동창회 주관으로 모교 ECC 극장에서 '물리학과 창립 60주년 기념 동창의 밤' 행사가 시작되었다. 1부는 '2015년 물리학과 동창회 정기총회'로서 조한규(86) 동창의 묵도와 찬양으로 시작하여 서기 보고, 회계 보고, 감사 보고, 그리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차례로 진행되었다. 끝으로 올해 졸업한 김희연 신임 동창 대표를 박수로 환영하였다. 이 자리에는 1963년도 졸업생인 3기부터 올해 졸업생인 55기까지 20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했으며, 모혜정·김성구 명예교수와 학과 교수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미경(88) 동창회 회계가 사회자로 나선 2부는 학과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로서 최경희 총장, 유영숙(화학 77) 자연대 동창회장(전 환경부장관), 국회의원 민병주(81) 동창, 한소엽 화학과 동창회장, 박영숙 생물학과 동창회장, 김승환 한국물리학회장(포스텍 물리학과 교수)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였고, 민병주 의원의 환영사와 최경희 총장과 유영숙 동창의 축사가 있었다.

특별히 이날 행사에서는 동창회에서 모금한 '학과 창립 60주년 기념 장학금' 600만 원을 최경희 총장이 직접 최진아 학생과 문한결 대학원생에게 자급하였다. 또한 동창들이 60주년을 축하하며 정성과 사랑으로 모은 후원금으로 모교 신축 기숙사 건립을 위한 기금 2000만 원과 물리학과 동창회 장학금



물리학과 창립 60주년 기념 동창의 밤

추가분 1000만 원을 최경희 총장에게 전달하였다. 더불어 동창회는 모혜정·김성구 명예교수 및 역대 물리학과 동창회장과 역대 자연대 동창회장에게 공로상과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날 참석을 못한 신승애·정병두 명예교수에게는 추후 공로상을 전달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건상 전공 주임교수의 물리학과 현황 보고와 김선주·김현애(90) 공동추진위원장의 60주년 행사 경과 보고 후 축하 케이크 커팅과 건배 제의가 이어졌다. 이어 물리학과 60년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을 감상하며 학창시절을 회상하였고, 함께 만찬을 나누었다.

이숙희(87) 동창회 총무가 사회를 맡은 3부 '화합의 시간'에서는 기별 동창 소개, 행운권 추첨을 한

후 교가 제창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물리학과 창립 60주년 기념 동창의 밤 행사 는 선후배 동창들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60년의 세월이 공존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피아노과

회장__우숙영(87)

이화뮤직페스티벌에서 동문음악회 열어

5월 21일(목) 7시 30분 모교 음대 리사이틀홀에서 2015 이화뮤직페스티벌 피아노과 동문음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권미혜, 장진영, 김승연, 서주희, 임지영, 임연실 동창이 연주를 했다.

관현악과

회장__김정미(90)

이화뮤직페스티벌에서 관현악 연주

5월 19일(화) 오후 7시 30분 모교 음대 리사이틀홀에서 관현악과와 한국음악과, 작곡과가 합동으로 이화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관현악과에서는



물리학과 창립 60주년 기념 장학금 전달

Rota 클라리넷 트리오와 Vivaldi 트럼펫 듀오를 연주했다.

성악과

회장__하인정(82)

이화뮤직페스티벌에서 박미자 교수 등 연주

2015 이화뮤직페스티벌이 5월 11일(월) 오후 4시 김영의홀에서 성악과의 연주를 시작으로 막을 열었다. 세계 각지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후학 양성과 연주 활동에 힘쓰고 있는 소프라노 이순화(91), 박지영(94), 홍은영(99), 김하영(02), 박금란(04)과 성악과 학과장 박미자 동창 등 총 16명이 연주하였다. 박미자 동창은 오페라 I Vespri Siciliani의 <Merce, dilette amiche>로 연주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화뮤직페스티벌에 참가한 성악과 동창들

작곡과

회장__남주희(88)

이화뮤직페스티벌에서 작품 발표

5월 19일(화) 오후 7시 30분 모교 음대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2015 이화뮤직페스티벌에서 모교 초빙 교수 원현미(88) 동창, 수원대학교 교수 하지양(80)

동창, 김지은(04) 동창이 작품을 발표했다.

한국음악과

회장__최혜정(90)

정기총회 및 동창모임의 날 행사

3월 23일(월) 오전 11시 이화삼성교육문화관 대회 의실에서 정기총회 및 동창모임의 날 행사를 열었다. 5월 19일(화) 오후 7시 30분 모교 음대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이화뮤직페스티벌에서는 신주희(99) 과 동창회 부회장과 채수정(94) 동창이 연주했다.

종교음악과

회장__최은희(81)

이화뮤직페스티벌에서 연주회 개최

5월 11일(월) 오후 7시 30분 김영의홀에서 2015 이화뮤직페스티벌 ‘종교음악과 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다양한 전공이 포함된 종교음악과의 장점을 살린 다채로운 구성과,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청중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음악회에는 오르가니스트 박소현·정혜연, 피아니스트 이은경·한정원·정수연, 성악가 양월향 동창 및 종교음악과 동창



이화뮤직페스티벌에 출연한 종교음악과 동창들

합창단(지휘 김상희)이 출연했다. 특히 6년 전부터 종교음악과 동창들로 구성되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종교음악과 동창 합창단은 아름다운 화음과 동창애를 과시하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유아교육과 스승의 날 기념 행사

장식미술과(공간)

회장_신선희(82)

동창의 밤 열어, 드레스 코드는 ‘땡땡이’

5월 11일(월) 저녁 6시 30분 모교 ECC 극장에서 동창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번 동창의 밤 행사의 드레스 코드는 ‘땡땡이’로 베스트 드레서에게 rose dot award를 수여했다. 회장단의 활약으로 푸짐한 경품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여 참석인원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장식미술과 동창의 밤

화전 교수, 이기숙·홍용희·김순환·정혜옥 교수, 그리고 전직 동창회 임원과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된 송은미(36기) 동창이 참석했다.

임산희(32기) 동창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의 온유갤러리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유청옥(39기) 부회장이 사회를 맡아 장태옥(38기) 회장의 감사인사와 장은경(38기) 선교부장의 기도로 문을 열었고, 노승현(51기) 동창이 축시를 낭송했다. 2부에는 행운권 추첨 및 선물 증정이 이어졌다. 제자들은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고 스승은 뿌듯함과 사랑을 느끼는 자리가 되어 더욱 의미 있었고 감동이 전해지는 시간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갤러리에 전시된 화려한 <색과 기> 전시작품을 감상하고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장소 제공과 음식 준비 등을 32기 동창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유아교육과

회장_장태옥(87)

온유갤러리에서 나눈 사제의 정

5월 9일(토) 원로 교수와 현직 교수를 모시고 스승의 날을 기념해 작은 행사를 가졌다. 유아교육과는 매년 스승의 날을 즈음하여 동창회가 주축이 되어 행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모임에는 이정환·이은

초등교육과

회장_박정서(81)

초등교육과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이성은 교수 은퇴식

5월 21일(목) 오후 6시 ECC 이삼봉홀에서 초등교육과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이성은 교수 은퇴



초등교육과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이성은 교수님 은퇴식

식을 가졌다. 초등교육과가 주최한 이번 창립 70주년 행사에 과 동창회도 적극 협조하였다. 교내외 내빈과 250여 명의 동창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은 양명수 교목실장의 기도, 최경희 총장의 격려사, 김성원 사범대 학장의 축사, 초등교육과 1학년 재학생들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연순 초등교육과 명예교수의 장학금 기탁도 이루어진 뜻 깊은 행사였다. 또한 2015년 8월에 정년퇴임을 하는 이성은 교수의 은퇴식을 겸하면서 교수의 석박사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아름다운 은퇴식을 진행했다. 특별히 초등교육과 창립 70주년 기념집도 발간하여 참여한 모든 이에게 전달하였다.

사대 동창회 부회장을, 부단장으로 이정옥(수교 80) 수교과 동창회장을 선임하였다.

가정관리과

회장_이재희(69)

부안 야유회 및 이가회 임원회의

4월 23일(목) 부안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다. 62년 졸업 동창부터 87년 졸업 동창까지 27명의 동창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신석정문학관, 이매창 묘소, 적벽강, 수성당, 영상테마파크 등 부안의 명소와 명랑 촬영지 및 역사 유적을 탐방·답사하며 선후배 동창들은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가정관리과 부안 야유회

영어교육과

회장_윤혜화(80)

사범대 동창 합창단에 영교과 20명 참여

5월 29일(금) 모교 창립 129주년 기념 동창의 날 합창제에서 영교과 20명을 포함한 사범대 동창 합창단 42명이 이수인 작사 작곡 <사랑의 노래>를 불러 1등상인 영예의 이화상을 상금 60만 원과 함께 수여했다. 이날 뒤풀이 행사에서 신경희(수교 77) 사대 동창회장의 격려로 사범대 동창 합창단을 창단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초대 단장으로 이미옥(영교 79)

5월 8일(금) 12시에 사은회를 겸한 이가회 임원회의를 광화문 산책향에서 개최하였다. 문숙재(가정 68) 교수를 비롯해 최남숙(가정 65) 고문, 임정희(가관 79) 아령회 회장, 이재희(가관 69) 이가회 회장, 유명희(가관 79) 부회장, 이정수(가관 73) 전 이가회 회장, 함계숙(가관 78) 동창, 김상희(가관 81) 교수, 김연경(가관 84) 동창이 참석하여 스승과 제자와 선후배가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또한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문숙재 교수에게 꽃과 케이크를 전달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남가주 지회

회장_장계원(도서 76)

재학생 장학금 수여 및 총장배 골프 대회

국제재단에서는 남가주동창회의 이름으로 매년 우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데, 2014년엔 최현아(화교 3학년), 오명우(국교 4학년), 권원경(경영 4학년), 조민영(영양 및 식품경영 4학년), 4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3월 30일 제12회 이화여대 총장배 장학기금마련 골프대회가 Los Coyotes Country Club에서 열렸다. 이 골프 대회는 2003년부터 동창 자녀 장학 기금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동창 및 가족, 게스트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4월 25일에는 55명의 동창들이 모여 솔뱅, 산타바바라로 일일관광을 다녀왔다. 이 행사를 위해 김현숙 총무, 장경해 부회장 및 임원진들이 음식과

과일, 음료 등을 준비해 주었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솔뱅 덴마크타운에 도착하여 맛있는 점심과 와인 테이스팅을 즐겼다. 오후에는 산타바바라 관광이 이어졌다. 화창한 날씨에 90이상 연로하신 선배님부터 05년 졸업한 막내 동창까지 즐겁고 유익한 여행을 할 수 있어 감사한 하루였다.

5월 2일에는 이사회를 열고 회계 보고, 서기 보고, 회장 보고에 이어 올해의 사업을 의논하였으며, 임원회의가 4월, 6월, 8월에 열려 4월의 일일관광, 9월 추석 행사, 10월 북미주지회 참가, 12월 송년 파티 등의 행사를 논의했다. 송년파티는 12월 13일에 LA Wilshire Country Club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경자 동창이 그동안 모으신 재료들을 녹미회에 기증하셨고, 8월 1일 예다아트에서 있었던 녹미회 모임에선 제4회 녹미전에 대해 의논하였다. 이번 녹미전은 아나하임 시의 Muzeo Museum에서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찬양 연습을 통해 신선한 활력소를 경험하는 동문합창단은 매주 토요일에 LA 동양선교교회에서 정기연습모임을 갖고 있으며, 지난 9월 20일 월셔연합감리교회에서 제11회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매년 두 번 동창회보를 발간하고 있는 남가주동창회보의 새 편집장으로 이정현(도서관 76) 동창이

수고를 하게 되었다. 지난 7년간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김영강 전 편집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대구 지회 합창제 연습

동문(불문 98)과 주택 가격이 폭등하여 어려운 상황에 집을 구입한 노지희 동창(국악 93)을 축하하였다.

멜번 지회

회장__박성혜(기독 95)

김향림 동창의 집에서 동창회 열어

멜번지회는 6월 22일 김향림 동창(외교 75) 자택에 모여 2015년 중반기 모임을 가졌다. 회원 모두 음식 한 접시씩 가지고 와 정을 나누면서, 직접 그린 유화로 집을 장식한 김향림 동창의 솜씨에 감탄을 하였다. 이날, 득남 이후 오랜만에 만난 정은재 동창(실내디자인 99)과 처음 참석한 이해영 동문(기독 88)을 환영하였으며, 드림하우스를 완공한 김상미

밴쿠버 지회

회장__김회연(가관 71)

신임 회장 선출

밴쿠버 지회는 2015년도 회장을 새로 선출하였다. 신임 회장은 김회연(가관 71) 동창이다.

북가주 지회

회장__제갈숙경(관현 79)

모교 방문의 추억과 종이접기 강습

6월 6일(토) 정오에 오클랜드의 고기타임에서 22명의 동창들과 정기모임을 가졌다. 많은 동창들이 여름 여행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지만 5월 이화사랑 모교 방문 프로그램에서 극진한 대우와 사랑을 받고 돌아온 동창들로부터 모교방문 보고와 소식을 듣고, 찍어온 사진을 함께 보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7월 7일(토) 정오에는 Hayward에 있는 ‘한국의 집’에서 31명의 동창들이 모여 정기모임을 가졌다.

멜번 지회 바비큐 모임

하였고 이어서 김경자(가정 59) 동창의 종이접기 공예 강습이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초등학생처럼 배우는 동창들과 함께 오랜만에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는 시간이었다.

샌디에고 지회

몬트리올 지회 동창 모임

32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식당의 에어컨이 망가진 바람에 실내가 마치 사우나에 앉아 있는 것 같아 회의 진행이 어려웠다. 매년 샌프란시스코 지회에서 국제재단을 통해 모교에 보내는 장학금이 있는데 그 장학금을 받은 4명의 재학생들로부터 온 감사편지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감사편지가 모두 영어로 되어 있어 오히려 불편했다. 다음부터는 한글로 써서 보내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8월1일(토) 정오에 쿠퍼티노에 있는 양승희 동창 댁에서 33명의 동창들과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정기 모임을 했다. 애틀랜타 총회에 대해 상의했으며, 김영자(약학 57) 동창이 학교 기금모금에 대해 이야기 했다. 김지연(성악 91) 동창의 합창지도로 애틀랜타 총회에서 부른 <10월의 어느 멋진날> 노래 연습을

회장__이광희(의직 73)

부부 동반 해변 피크닉

매년 여름 행사로 마련되는 ‘해변 피크닉’이 지난 7월 15일, 미숀 베이의 청색 가지보 아래에서 부부 동반으로 열렸다. 정기 모임에서 행하는 ‘도서와 의류 세일’은 다음 회로 미루고, 회장단이 준비해 온 샐러드, 캘리포니아 롤, 과일, 케익으로 소풍 기분을

샌디에고 지회 회원들

한껏 내고, 푸른 바다를 낀 해변 산책길을 모두 함께 걸었다. 동문 소식, 한국 뉴스로 꽂 피우는 우리들의 화제는 남가주의 넓은 대양과 같이 끝없이 펼쳐졌다.

시드니 지회

회장__김봉희(서양 74)

박제향 동창 집에서 동창회 열어

8월 8일(토) 박제향(과교 76) 동창 집에서 18명의

도자기 클래스를 수강한 미네소타 지회 동창들

시애틀 지회 여름 야유회가 8월1일 Kirkland에 있는 아름다운 O' Denny Park에서 열렸다. 동창들과 동창 가족 50여 명이 모여 양념 갈비와 꽁치 바비큐, 풍성한 야채로 맛있는 점심을 들고, 게임과 상품, 기념품까지 즐기며 감사한 하루였다.

매년 야유회를 위하여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계시는 고문 김예자(신방 60입) 동창과 만사 제치고 오셔서 땀 흘리며 고기를 구워주시는 이화 사위님께 감사드린다. /

신시내티 지회

회장_김영채(영문 59)

작지만 알찬 겨자씨 같은 모임

신시내티 지회는 일 년에 4회 3, 5, 9, 11월 둘째 금요일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음을 알기에 금년에도 잊지 않고 동창 회비를 서울 총동창회에 전달하고, '선배라면' 장학금도 국제재단에 보내고 있다. 2016년 이화창립 130주년을 위한 '백만불 모금운동'에도 많은 동창들이 참여하였다.

작으나마 알찬 겨자씨 같이 이화의 정신 진. 선.

모교를 방문한 샌프란시스코 지회 동창

동창들이 모였다. 지난 모임에서 예고했던 대로 권영규(생물 75) 동창이 일식요리 '비빔 초밥(일명 짜라시 스시)' 만드는 시범을 보여 맛있는 초밥과 그린 피 샐러드를 곁들여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모임에는 몇 년 전 남편의 해외법인 주재근무를 따라 시드니에 거주하다 현재는 캐나다 법인으로 옮긴 윤성원(교공 87) 동창이 방문해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서로들 반갑게 맞이했다. 이화동산에서 4년을 함께한 우리 이화동창은 세계 어디를 가든 한 동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호주 시드니는 긴 겨울을 보내고 이제 봄을 알리는 매화가 피기 시작했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연말 모임을 기대해 본다.

시애틀 지회

회장_박정혜(체육 71)

여름 야유회 개최

62 이화동창 • 2015 여름호

동창 카페를 찾은 시드니 지회

미를 항상 가슴에 담고 사는 우리 신시내티 지회이다.

싱가포르 지회

회장__조혜숙(영문 89)

긴 휴가를 마치고 하반기 모임을 시작

싱가포르 지회의 동문들은 지난 4월 최경희 총장님 일행의 싱가포르 방문이라는 큰 행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새삼 이화인으로서의 하나됨을 느끼는 행복한 여운을 뒤로하고 긴긴 여름 휴가철을 보냈다. 국제학교 학생들의 학부형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싱가포르 지회의 특성상 6~8월은 공식적인 동문 모임이 없다.

8월 27일(목)에 센토사에 위치한 이태리 식당 il Lido에서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된 조혜숙(영문 89) 동창의 선창으로 삼페인 건배와 함께 새로운 하반기 모임의 시작을 열었다. 모두들 긴 여름 휴가를 건강히 보낸 모습으로 시종일관 웃음과 배려가 넘쳤다. 특히 이날은 싱가포르 지회의 최고 어른이시고 후배들의 정신적 기둥이신 신명숙(사학 61) 동창의 참석과 더불어 정지은(정외 98) 동창의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기 민호くん이 참석하여 세대를 어우르는 훈훈한 모임의 장이었다. 다음 달에 있을 추석 선물을 염두

애틀랜타 지회 3월 모임

에 두고 참석 인원 수대로 본인이 직접 제작한 예쁜 헤어핀을 고급스럽게 하나하나 포장해서 준비해 온 오선영(문정 00) 동창에게 환호성이 쏟아지기도 했다. 서로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모습이 아름답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모임이었다.

앞으로 골프회, 트래킹회와 같은 소규모 그룹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라틴댄스회 등 몇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 보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더욱 모색해 보기로 하였다. 또한 다음 번 모임부터는 동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들을 모두들 가져와서 돌려 읽기로 하였다.

애틀랜타 지회

김정희(약학 79)

가족 야유회와 대상포진 특강

6월, 숲속에서 무더위도 잊은 채 오순도순 정을 나누는 귀한 만남을 가졌다. 멀리 Alabama Mobile에서 오신 김현순 동창 내외와 처음 참석한 이미정 동창에 대한 환영이 있었으며, 조성숙 동창 남편의 지도로 빙고 게임을 즐기는 등 알찬 시간을 보냈다. 이날 동창의 남편들은 땀을 흘리며 구워준 고기, 옥수수, 고구마와 맛있는 칠밥, 야채 등으로

애틀랜타 지회 선교의 달 모임

푸짐한 점심식사를 하였고, 식사 후에는 남편들과의 혼성합창으로 ‘빈대떡 신사’를 불러 보았다. 놀라운 실력에 지휘자가 감탄하여 총회에 출연할 것이 기대되었다.

7월 모임에서는 10월 29일~11월 1일 열릴 예정인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일정에 대하여 의논을 하였다. 총회 신청서를 배부하고, 금요일 탈랜트쇼에는 <난타> 공연으로 출연하기로 하였다. 담당에 최인옥(건교 87) 동창이 수고하기로 하였다. 문화교실은 정호문의 ‘한지부채 만들기’ ‘사군자’로 결정하였고, 금, 토 세미나 특강에 정소영, 김영례, 최인경, 기조연설은 유복렬, 안내, 접수, 차량, 물품관리, 기타 인원 배치는 이복희(섬예 75) 동창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7월에 생일을 맞이한 정문자, 김정숙, 송문희 동창의 생일 축하가 있었다.

식사 후에는 김자영(약학 86) 동창의 ‘대상포진과 예방’ 특강이 이어져 유익한 시간이었다. 8월에는 김숙자 동창의 아들이 경영하는 일식집 MICHIBISTRO&SUSH에서 맛있는 스시와 튀김 도시락, 월남국수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모임은 조수현 동창의 기도로 시작하였고, 8월 8일로 88세 생신을 맞이하신 성정순 교수님을 축하하며 김숙자 동창이 케이크를 준비하였다. 8월 생일을 맞이한 장윤심, 성정순, 김복희, 정정남 동창과 9월 생일인 정제니 동창, 7월 생일이었던 조수현 동창을 다같이 축하노래와 선물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80세 넘은 오은경, 김숙자 동창과 성정순 교수님은 8학년 기념촬영을 하였다. 이날 처음 참석한 김원희(조소 13) 동창은 어머니와 동생이 함께 와서 더욱 반가운 자리였다. 식사 후에는 김숙자 동창의 깜짝 특별쇼 밸리댄스 공연이 있었다.

울산 지회

최의숙(의학 77)

댄스 공연과 강습으로 활기찬 모임

계5월 19일(화) 12시에 롯데호텔 폐닌슐라 뷔페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울산 지회는 5월과 12월에 2번의 정기 모임을 하고 있으며, 5년을 단위로 각기 모임을 활발히 하고 있다.

오레곤 포틀랜드 지회 소그룹 모임

총회에는 3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선후배간의 우의를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총무를 맡은 김애라 동창의 회무 보고가 있었고, 작년 송년 모임에서 각 기별로 최경희 총장님에게 약정한 모교 기숙사 건립후원 기금을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하였다.

맛있는 점심 식사 후 김매자 동창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밸리댄스 공연을 하고 동창들에게 강습을 하여 주었고, 안진희 동창은 이대 알프스에서 배운 차차차 공연과 함께 강습을 해 주었다. 즐거운 댄스 시간을 가지면서 활기찬 모임이 되었다. 다음 12월 모임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뒤로한 채 모임을 마쳤다.

필라델피아 지회

회장__홍정임(영문 60)

‘봄 시’를 듣고 ‘봄 노래’를 배우다

필라델피아 지회는 매달(1, 7, 8월 제외) 첫 번째 월요일에 정기모임을 하고 있다. 정기모임은 무엇보다 동창들 간에 친목과 우애를 도모하고, 가능하면 좋은 배움의 기회를 함께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는 2월에 동창들과 함께 신년 모임을 갖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 3월에는 봄까지 계속되었던 눈사태로 동창회 모임이 취소되기도 했다. 4월에는 동창들이 선정해 온 ‘봄 시’들을 같이 듣고, 음대 졸업생인 양경자·김원경 동창의 지도로 ‘봄 노래’를

토론토 지회 걷기동호회

토론토 지회

회장__임영희(정외 77)

건강과 친목 위해 걷기동호회와 골프동호회 모임 시작

3월 9일(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45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사업 보고와 회계 보고를 하고, 2015년의 사업계획 및 행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4월에는 올 들어 두 번째 핫불회 모임을 가졌다.

5월부터는 동창들의 친목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걷기동호회와 골프동호회 모임을 시작했다. 걷기동호회 모임은 매주 토요일 예쁜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에드워드가든에서 함께 걷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눈다. 골프동호회 모임은 매달 둘째 주 화요일에 모이는데 올해는 특별히 8월에 열리는 토론토 주재 각 대학 동창회 대항 골프대회를 모교 토론토 동창회가 주최하는 만큼 열심히 실력들을 갈고 닦는 중이다.

5월 9일(토)에는 해마다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열리는 툰립 축제를 하루 일정으로 다녀왔다. 긴 시간을 오간 여행이었지만 아름답게 편 꽃 앞에서 모두가 소녀 같은 모습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귀한 추억을 만들었다.

봄 시와 노래를 함께 나눈 필라델피아 지회

꽃꽂이를 배우는 필라델피아 지회 회원들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5월에는 꽃꽂이 전문가를 초빙해 꽃꽂이를 배우기도 했다. 6월 모임에서는

전희곤 의학박사(김영애 동창의 남편)를 초대해 ‘웰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배우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7~8월 여름 기간 동안은 방학으로 쉬고 9월에 다시 정기 모임을 가진다.

하와이 지회

회장__오해숙(사회 79)

최경희 총장과 홍콩 지회 동창들

대선배와 함께한 정기 여름 모임

5월 30일(토) 호놀룰루 타운에 위치한 일식당에서 정기 여름 모임을 가졌다. 교가로 시작하여 임원들의 재정 보고와 기타 소식들이 이어진 다음 재미난 유머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특히 모교 1회 졸업생인 김덕희(가정 49) 동창과 오금녀(Pat Kahng,

홍콩 지회

회장__정도경(사회 81)

총장 일행에게 신축 기숙사 건립 기금 약정서 전달

3월 12일(목) 홍콩을 방문한 최경희 총장 일행은 낮 12시 홍콩 컨트리클럽에서 동창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 이화’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최경희 총장은 이화를 세계 대학 100위권 내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숙사 증축이 급선무라는 점을 PPT를 통해 강조했다.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최 총장이 직접 설명회를 진행하자, 참석한 동창들은 아주 진지한 자세로 열심히 경청하였다. 이날 설명회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신축 기숙사 건립 기금으로 한화 5000만 원의 약정서가 총장

하와이 지회 정기 여름 모임

영문 49, 이번에는 불참) 동창이 매번 여전히 건재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이날은 하와이 주립대학에 교환교수로 와 있는 모교 교수 박선희(국문 92) 동창도 함께 자리했다. 좀 더 자주 모임을 갖기를 희망하며 아쉬움을 뒤로한 채 동창회를 마쳤다.

일행에게 전달되는 홍콩 동창회 회장을 축하합니다

기금으로 한화 7300만 원, 1만 2000홍콩달러가 모금되었다.

참고로, 방해자(교육 66) 동창이 제공한 홍콩 컨트리클럽은 장소와 시설이 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아주 훌륭한 곳이었다.



김양식 동창

김양식(영문 54) 동창

한 공간이 될 것이다.

김양식 동창이 관장으로 있는 인도박물관이 2015년 6월 1일(월) 인도 Visva-Bharati(일명 타고르 국제대학)와 ‘한국관’ 건립 MOU를 체결하였다. 김양식 관장은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1921년 설립한 대학 캠퍼스 내에 오랜 숙원이던 ‘한국관(Korea Bhavan)’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Visva-Bharati의 부총장 Dr. Sushanta K. Dattagupta와 교육대학 학장인 Prof. Sabujkoli Sen 교수를 5월 29일(금)에서 6월 3일(수) 일정으로 초청하여 진지한 협의 끝에 MOU를 체결하였다. 대지 200평, 건물 1, 2층 각 100평의 규모로 2016년 5월 완공 예정인 한국관은 건립과 함께 한국어 강좌를 만들어 점차적으로 학생들에게 저변을 넓힌 후에 공식적으로 한국어 과를 개설하여 문화, 역사 등을 교육할 수 있는 특별



계명선 동창

신영희(정외 94) 동창

Naisa의 설립자이자 CEO인 신영희 동창이 전 세계의 젊은 아시안 리더들을 장려하는 최초의 비영리 교육단체 프로그램 ‘Naisa멘토–프로테제’를 발표했다. ‘Naisa멘토–프로테제’는 최우수 대학의 졸업생 및 글로벌 기업, 컨설팅회사, 로펌에서 활동하는 전도유망한 전문직 종사자 등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젊은 아시아인 중 프로테제들을 선별하여 멘토와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Naisa는 2015년에 200쌍의 멘토와 프로테제를 연결할 예정이며, 2017년 말까지 세계 곳곳에서 1만 명의 프로테제 지원자를 받아 그중 1000명을 멘토와 연결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인이 세계 각지에서 마주하는 리더십 장벽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수연 동창



장혜원 동창



김기순 동창

계명선·권현경·김은수·김종미·박용선·장미화·정미경·홍미혜(이상 피아노 85) 동창

3월 11일(수)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IBK홀에서 모교 음대 피아노과 81학번 계명선·권현경·김은수·김종미·박용선·장미화·정미경·홍미혜 동창이 다섯 번째 동문음악회를 가졌다.

함영림(피아노 80)·계명선(피아노 85) 동창

3월 21일(토) 오후 5시 Yamaha Artist Services Seoul 콘서트 살롱에서 모교 공연예술대학원장 겸 음악대학장 함영림 동창과 계명선 동창이 2015 Yamaha Grand Piano Fair에 초청되어 듀오 피아노 콘서트를 열었다.

정수연(건반 01) 동창

2월 3일(화) 용산아트홀에서 열린 ‘제5회 서울예술가곡회—봄길 따라, 그대 오면’에서 반주했다. 3월 18일에는 부산 금정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01회 금정수요음악회—The Sounds’에 출연했다.

장혜원(기악 62) 동창

5월 14일(목) 예술의전당 IBK홀에서 모교 음대 은퇴교수 장혜원(한국피아노학회 이사장) 동창의 희수연 연주회가 제자 48인의 참여로 성대하게 열렸다.

김기순(기악 66) 동창

모교 음악대학 졸업생으로 이루어진 이화체임버오케스트라 제16회 정기연주회가 모교 명예교수 김기순(단장 겸 상임지



문성희 동창

휘) 동창의 지휘로 지난 6월 15일(월) 오후 7시 30분 영산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연주에는 피아노 이귀란(피아노 90) 동창, 소프라노 류미(성악 07) 동창, 첼로 권윤주(관현 11) 동창이 협연했다.



조양선 동창

진정숙(작곡 75)·한혜리(작곡 79)·심옥식(작곡 82)·임경신(작곡 92)·홍사은(대학원 83)·남정

현(작곡 02) 동창

5월 10일(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진정숙 동창, 숙명여대 초빙교수 한혜리·심옥식 동창, 임경신·홍사은·남정현 동창이 작곡동인 멜로스 제24회 정기작품발표회 ‘한국의 소리 IV’를 통해 작품을 발표했다.



박은혜 동창

진정숙(작곡 75)·이상인(작곡 78)·박유선(작곡 90)·김지은(작곡 04)·김지현(작곡 00 입학, 재학 중도미) 동창

5월 14일(목) 오후 7시 30분 세종체임버홀에서 진정숙·이상인(성결대 교수)·박유선·김지은·김지현 동창이 신음악학회 제35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작품을 발표했다.



조은미 동창



마승연 동창

문성희(작곡 80) 동창

5월 15일(금) 오후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양상블시어터에서 성결대 교수 문성희 동창이 작품 발표회 ‘마음으로 읽는 자연’을 열었다.



남연숙 동창

연주회를 가졌다.

박은혜(작곡 87) 동창

6월 11일(목) 오후 7시 30분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모교 음대 교수 박은혜 동창이 한국-루마니아 수교 25주년 기념 공연 작품을 발표했다.

양윤정(종음 95) 동창

5월 26일(화) 계명대학교 아담스채플에서 열린 ‘정오 오르간 음악 산책’에서 독주 연주를 했다.

조은미(무용 78)·마승연(무용 03) 동창

모교 교수 조은미 동창이 예술감독으로 있는 현대무용단-탐이 올해 창단 35주년을 맞아 지난 3월 ‘현대무용단-탐 35주년 기념 작품시리즈 I 레퍼토리공연’을 펼친 데 이어 두 번째 기획공연으로 ‘현대무용단-탐 35주년기념 작품시리즈Ⅱ 정기공연’을 5월 11일(월) 모교 삼성홀에서 개최하였다. 정기공연에서는 탐 무용단의 대표이자 무용수,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승연 동창의 작품 <BLUE>가 공연되었다.



최인경 동창



정귀순 동창

남연숙(도예 86) 동창

2014년 8월부터 ‘Guam Council of the Arts and Humanities Agency (CAHA)’ 주최 미니 아트 전

조양선(작곡 85) 동창

5월 30일(토) 오후 7시 30분 모교 음대 김영의홀에서 2015 이화뮤직페스티벌 음대 졸업 30주년 기념

시회를 Community First Federal Credit Union 은행에서 열고 있으며, 2015년 2월부터는 같은 전시회를 Senator 사무실에서 열고 있다. 5월 7일(목)에는 구한(Guahan, Guam의 차모로 말) 예술가 멤버로서 투먼 샌드 플라자 팜 모자이크 화랑에서 예술 전시회를 열었다. 6월에는 ‘오브라5 (Obra V) 팜·필리핀 아티스트가 주최하는 그룹 전시를 미크로네시아 몰 전시장에서 개최하였다. 오는 7월에는 CAHA 갤러리에서 Portraying and Preserving Chamorro Culture’라는 제목으로 한 달간 개인전을 갖는다. 전시회에는 13점의 신작이 전시되며 이 작품을 넣은 2016년 달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인경(교심 89) 동창



한혜경 동창



김주연 동창



최심영 동창

5월 16일(토)에서 6월 3일(수) 까지 갤러리 Poem{88}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변은경 동창

정귀순(특교 78) 동창

3월 1일(일)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교육과 특수교육담당장학관으로 취임하여 인천의 장애학생 및 학부모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지현(간호 97) 동창

한혜경(특교 85) 동창

한혜경 동창은 2012년 2월 남편과 함께 미얀마로 사역을 떠나 지금까지 2년 이상 구순구개열(언청이) 수술을 통한 의료 사역과 한국어 학당을 통한 교육 사역을 펼쳐오고 있다.



김지현(대학원 11) 동창

2015년도 ‘이화인 연회비 납부’에 참여해주십시오

동창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장학사업과 회보 제작 및 우송료 등에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연회비(3만 원)는 지로용지 대신 아래 계좌번호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 이대총동창회)

김주연(수교 96) 동창

청와대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교육복지과장으로 근무하던 김주연 동창이 국무총리실 교육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양순옥(간호 75) 동창

보건간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최심영(간호 80) 동창

이화여대 의료원 서남병원 간호부장으로 발령받았다.



변은경(간호 83) 동창

이화여대 의료원 목동병원 간호부원장으로 발령받았다.

김지현(간호 97) 동창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김지현(대학원 11) 동창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서숙(영문)

68)

서숙 지음 / 이대 출판부

- 모교 영문과 교수 서숙 동창이 자신의 강의록을 소설별로 펴낸 '서숙 교수의 영미소설특강' 시리즈의 여섯 번째 책. 해밍웨이의 장편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의 강의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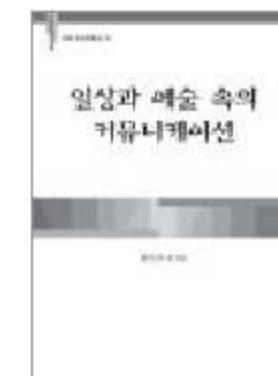


낯선 것들과 마주하기 이수경(영문)

84)

이수경 지음 / 한울

- 199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작가가 암 진단을 받은 후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쓴 글을 엮은 산문집.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한 저자 나름의 고찰과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두루 녹아 있다. 저자는 자기 내면의 힘에 대한 믿음과 인간의 마음에 작동하는 상상력이 몸과 마음을 치유해갈 수 있다고 말하며, 희망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창출해 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웃는 세상 김선주(불문 65)

김선주 지음 / 인간과문학사

- 일상은 소리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가벼운 놀라움부터 아찔한 반전까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상의 뒷면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소설.



꽃비 내린다 김선주(불문 65)

김선주 지음 / 개미

- 부모와 자식은 어떤 사이인가. ‘돈’ 앞에 삶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한 인간으로 바로 살 수 있는가, 이승의 삶을 살고 난 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무심천’은 무엇이고 ‘요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하는가. 맹목적인 혈연관계를 성찰하는 질문을 던지는 소설.



일상과 예술 속의 커뮤니케이션 함인희(사회 81) 함인희 외 지음 / 이대 출판부

- 이화 한국학총서 10.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학문적 렌즈에 투영된 커뮤니케이션의 다면적 현상을 포착해 정리한 책. 1부에서는 한국 부부의 일상생활에 나타난 커뮤니케이션을 고찰하여 부부생활의 만족도에 커뮤니케이션이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세대에 따라 성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2부에서는 한국의 문화 예술 속에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을 고찰한다. 문학, 미술, 춤에 나타난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존재방식을 논한다.



방송학 원론(제3개정판) 유세경(신방 82) 유세경 지음 / 이대 출판부

- 방송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총망라한 방송학 기초 입문서. 제3개정판에서는 방송의 본질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른 방송 산업의 특성, 규제와 정책, 방송 운영의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종합편성 채널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방식의 프로그램이 제작·편성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사례를 다양화하였다.



세계에서 제일 크고 멋진 물고기 석정자(성악 67) 석정자 지음 / 음악춘추

- 40여 년간 교직에 몸담은 저자가 교육현장에서의 경험, 70여 년의 인생행로에서 느낀 감정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관찰하고 도덕의 실천을 교육의 통로로 삼아야 한다는 교육철학을 담은 수필집이다.



오늘도 마지막처럼 김자수(종음 81) 김자수 지음 / 청어

- 입양아, 원치 않은 결혼과 가정폭력, 이혼 등 굴곡진 인생 속에서도 더 힘든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두 아들을 당당히 키운 싱글맘의 인생 스토리. 살아 있으므로 꿈꾼다는 저자의 인생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전한다.



그와 그녀의 시나리오 전청림(도예 15) 전청림 지음 / 글빛(이대 출판부)

- 제9회 이화글빛문학상 수상작. 주인공 대학원생이 겪는 다사다난한 연애 이야기 속에 다양한 철학적 개념과 가치를 더해 궁극적인 사랑의 의미를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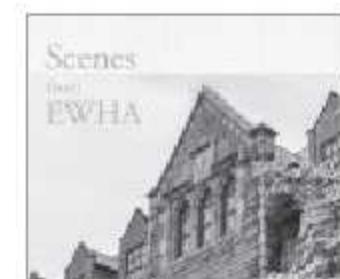


하늘의 비상경보 이정화(법학 84) 이정화 지음 / 북랩

- 1998년 전국 신양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시인 이정화의 삶과 믿음 이야기. 몽테뉴의 ‘수상록’을 연상시키는 짐언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신양시를 모았다. 시인으로서, 신양인으로서 걸어온 길에 대한 담담한 고백과 무아지경의 기도 속에서 얻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가득하다.

엄마다운 엄마 유명희(가관 79) 유명희 지음 / 도서출판 좋은땅

- 직접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한 사실을 기록한 양육일기와 행동관찰 일기에 아동발달이론을 접목시켜 양육행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부모 교육서. 저자가 두





제11회 ‘아름다운 이화인상’ 후보를 추천해주십시오

총동창회가 ‘아름다운 이화인상’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총동창회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섬김과 나눔, 봉사의 이화정신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동창을 찾아내 그 공을 치하하고 격려하며 널리 세상에 알려 시대의 귀감이 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올 겨울 ‘이화인의 밤’에서 시상할 ‘아름다운 이화인상’ 후보 추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역대 수상자

- 제1회 박진숙(부산 매실보육원장, 심리 58) 동창
제2회 김행자(광주 로렌시아의 집 원장, 불문 64) 동창
제3회 방숙자(글로벌어린이재단 이사장, 정외 56) 동창
제4회 윤애리나(부산 자매정신요양원 원장, 간호 59) 동창
제5회 박양미(아프리카 선교사, 제약 82) 동창
제6회 강선희(무료 법률도우미, 법학 61) 동창
제7회 신경희(네팔 선교사, 특교 84) 동창
제8회 최재명(경산복지재단 이사장, 사복 66) 동창
제9회 김송자(대천애육원 원장, 불문 64) 동창
제10회 이인숙(덕포진교육박물관관장, 초교 70) 동창



시상 내용	상패와 상금 1000만 원
수상 후보 자격	사회복지, 의료, 법률, 종교, 교육,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10년 이상 나눔과 섬김, 봉사의 정신을 실천한 동창(정회원, 준회원)
추천인 자격	각 대학(원) 동창회장, 국내 및 해외 지회장, 전문직 동창클럽 회장, 동창 100인 이상(연명 날인)
구비 서류	추천 사유 및 후보자 업적사항 전술서 1통(본회 소장양식) 후보자 업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기타 필요 서류 후보자 이력서 1통(명함판 사진 1장 포함)
접수 기간	2015년 8월 24일(월)~28일(금) ※ 우편 접수는 8월 28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함
접수처 및 문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우 120-750)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니 주요 증빙자료는 사본을 제출해주세요.